

낙소스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 선정'

Naxos new release

- 8.550533-34(2CDs)
MAHLER:
Symphony No. 8
'Symphony of a Thousand'
 Kubiak • Klosinska, Boberska, Rappe, Marciniak, Bentsch, Drabowicz, Nowacki, Warsaw National Philharmonic Choir and Orchestra, Antoni Wit, conductor
- 8.557447
PERGOLESI:
Stabat Mater
Salve Regina
 Jorg Waschinski, soprano, Michael Chance, counter-tenor, Cologne Chamber Orchestra, Helmut Muller-Bruhl, conductor
- 8.557922
RUTTER:
Mass of the Children
 The Choir of Clare College, Cambridge, Farham Youth Choir, Timothy Brown
- 8.557725
PROKOFIEV:
Alexander Nevsky (cantata)
Lieutenant Kije (suite)
 Ewa Podles, ms, Latvian State Choir, Lille National Orchestra, Jean-Claude Casadesus, cond
- 8.557728
MOZART:
Requiem, K. 626
 Miriam Allan, sop, Anne Buter, ms, Marcus Ullmann, te, Martin Snell, bass, Leipzig Chamber Orchestra, Morten Schult-Jensen, cond
- 8.557344
HENZE:
Guitar Music • 1
 Colin Balzer, te, Debora Halasz, pf, Franz Halasz, guitar, Sebastian Hess, vc, Karsten Nagel, fg, Sophia Reuter, va, Gottfried Schneider, vn
- 8.557522
SCHOENBERG:
Serenade • Variations, Op. 31
 Bach Orchestrations, Stephen Varcoe, bass, Twentieth Century Classics Ensemble, Philharmonia Orchestra, Robert Craft, cond
- 8.557432
SAMMARTINI:
Pianto degli Angeli della Pace
Symphony in Eb
 Silvia Mapelli, sop, Ainhoa Soraluze, ms, Giorgi Tiboni, te, Capriccio Italiano Ensemble, Daniele Ferrari, cond
- 8.557542
RAMIREZ:
Misa Criolla
Navidad Nuestra
Missa Luba
 Christal Rheams, alt, Manuel Melendez, Jose Sacin, Pablo Talamante, tenor, Washington Choral Arts Society, Joseph Holt, conductor
- 8.557493
HEAR MY PRAYER
Hymns and Anthems
 Karina Gauvin, sop, Matthew Larkin, org, St. John's Choir, Elora, Noel Edison, cond
- 8.557670
HEIFETZ:
Transcriptions for Violin and Piano
 이수연, violin, Michael Chertock, piano
- 8.557776
FOERSTER:
Symphony No. 4
Festival Overture
My Youth
 Slovak Radio Symphony Orch., Lance Friedel, conductor
- 8.557627
SACRED & SECULAR MUSIC FROM RENAISSANCE GERMANY
 Ciaramella Instrumental & Vocal Ensemble
- 8.557780
DONIZETTI:
Songs
 Dennis O' Neill, tenor, Ingrid Surgenor, piano
- 8.557944
BARSANTI:
6 Recorder Sonatas, Op. 1
 Barnaby Ralph, recorder, Huguette Brassine, cemb, Louise King, vc
- 8.557337
ADAM DE LA HALLE:
Jeu de Robin et de Marion
 Tonus Peregrinus, Antony Pitts, conductor
- 8.557459
SEIXAS:
Complete Works for Harpsichord, Vol. 1
 Debora Halasz, harpsichord
- 8.557842
BRIDGE:
Piano Music, Vol. 1
 Ashley Wass, piano
- 8.557450
BACH, C.P.E.:
Sonatas and Rondos
 Christopher Hinterhuber, piano
- 8.553972
HAYDN:
Piano Variations
 Jeno Jando, piano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 April 2006



CD Hot Issue

안토니 비트의 말리 교향곡 3번

Artist of Kirkelig

노르웨이 포크뮤직의 아버지 손드레 브라들란

Newly Imported DVD

구석 레퍼토리 찾아듣는 즐거움...독일의 Cascade

Cover Story

당당한 소녀, 15세 피아니스트 방인주

당당한 소녀, 15세 피아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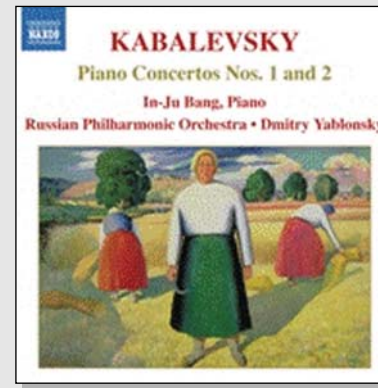
방인주

1990년 충북 서산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깊었지만, 고향 시골에서는 어떤 특별한 음악공부를 할 수 없었던 소녀. 어린 시절 음악을 향한 그녀의 지대한 열정이나 관심을 만족시켜줄 수 있었던 것은 시골의 교회 콘서트에 참석하고 CD를 사서 음악을 듣는 일 정도였다. 소녀는 11세 때 서울로 상경했고, 한 음악학교에서 미국 커티스음악원과 영국 왕립음악원에서 수학한 피아니스트 유수현 선생한테 집중적인 지도를 받았다. 그리고 국내 콩쿠르 무대에 참가해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봤고, 몇 번의 리사이틀과 콘서트도 개최했다. 이후 세계의 문도 두드려봤다. 그녀는 자신이 예사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2004년 스페인의 푸이세르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참가한 그녀는 그곳에서 1등상을 받는 쾌거를 이룩했다. 그녀의 나이 13세 때의 일이었다. 2006년에는 뉴욕의 줄리아드 음악학교에 입학해서 더 큰 피아니스트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 중이다.

방인주의 성공 스토리는 일찌감치 천재 연주가 혹은 신동 연주가로 데뷔했던 많은 유명 아티스트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 그녀의 데뷔 과정은 대단히 소박하다. 어린 나이에 성공했던 여러 국내 연주가와는 달리, 그녀는 부모의 막강한 경제적 여력이나 인맥으로 음악계에 진출하지 않았다. 시골 출신 방인주의 집은 부유한 편도 아니었고, 미국에 인척이나 어떤 특별한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한 특별한 열정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을 선택했고, 어린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의 정체가 뭔지, 자신이 원하는 매혹적인 음악가의 세계가 뭔지 그 꿈을 좇다보니 미국까지 갔고 지금에 이르렀다. 그녀야말로 거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인정받았고, 당당하게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겠다. 요즘은 실로 보기 드문 케이스의 피아니스트 성공사례가 아닌가 한다. 나약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얘기는, 그 어린 10대 어린 소녀가 미국에도 혼자 갔다는 사실이다. 비록 어린 나이이지만 그녀가 얼마나 당찬 성격의 소유자인가를 잘 말해준다.

머지않아 국내 매스컴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그녀의 이름이 아직까지는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음악이 좋아 순수하게 자신의 판단으로 음악가의 길로 들어서서 서서히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이 소녀 피아니스트에게 제발 천재니 신동이니 하는 수식어를 붙여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 말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 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실제로는 그리 많지 않으며, 현재 우리 사회에는 그 말이 너무 남발되어 있다. 성공가도를 달린 그녀의 나이가 충분히 천재니 신동이니 하는 말로 부를 수 있을 정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과장된 수식어는, 그녀의 순수한 열정을 빛바래게 할 수도 있고, 근원적으로 그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다. 하지만 그녀가 지닌 재능이 특출하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 하나의 음반이 그녀의 실력을 증명해 보인다. 강동석, 백건우, 장혜원 등 초창기부터 한국 음악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 왔던 낙소스가 이번에 방인주의 뛰어난 실력에 주목하고 음반을 내주었다. 더군다나 러시아 출신의 중견 지휘자 드미트리 야블론스키가 지휘하는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다. 레퍼토리는 좀 낯설다. 하지만 방인주는 테크닉은 물론 음악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도 깊고 자신만의 개성적인 표현도 감추지 않는다. 카발레프스키 음악의 특징인 밝고 낙천적인 정서도 잘 살렸고, 특히 라흐마니노프처럼 들리는 협주곡 1번의 2악장의 풍성한 정감의 노래는 압권이다. 물론 전설적인 모이세비치의 연주나 캐스린 스토티의 연주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나이를 생각해보라. 이 녹음을 했을 당시 그녀의 나이는 14살이었다. 중학생 소녀를 연상하며 다시 음악을 들어보면 음반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실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음반에서 특별한 점 중의 하나는 좀처럼 연주되지 않는 협주곡 1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레퍼토리를 위해서라도 이 저렴한 음반의 구입을 망설일 이유 없다. 실력 있는 당찬 소녀 피아니스트의 음반에 큰 박수를 보낸다!

낙소스를 통해 발매된 피아니스트 방인주의 음반



Naxos 8.557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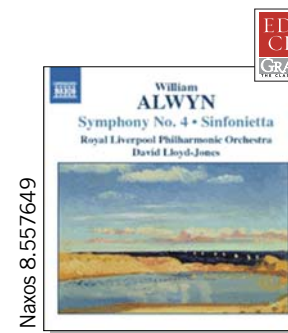
카발레프스키 : 피아노협주곡 1, 2번

연주 : 방인주(피아노),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카발레프스키는 쇼스타코비치와 거의 동시대에 활약했던 소비에트 작곡가의 한 사람이자, 뛰어난 기교를 자랑했던 비르투오조 피아니스트였다. 그의 피아노협주곡은 라흐마니노프와 프로코피예프의 영향이 물씬 배어나오는 선율적인 작품들로, 20세기 작품답지 않은 친근함이 인상적이다. 2004년 14세의 나이로 스페인의 푸이세르다 국제 콩쿠르를 석권했던 우리의 신예 피아니스트 방인주의 조숙한 연주력이 감탄을 자아내게한다.

Gramophone 2006년 5월호 Editor's Choice



Naxos 8.557649

Alwyn : Symphony No.4 & Sinfoniet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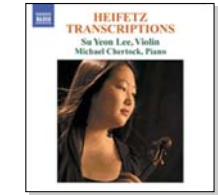
Royal Liverpool Philharmonic Orchestra
David Lloyd-Jones

데이비드 로이드-존스는 더 유명한 인물들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탁월한 지휘자 중 하나이나, 자신이 장기로 하는 영역에서는 비할 데 없는 인물이기도 하다. 얼윈은 그에게 안성맞춤의 작곡가이다. 그는 감정의 파도를 크게 굽이치게 함으로써 듣는 이에게 작곡가와 영국 영화의 상관관계를 일깨워준다(얼윈은 영국 영화 아카데미의 회원이었던 유일한 작곡가이다). 이와 동시에, 그는 이 음악을 영국 작곡가들의 계보에서 본 윌리엄스 계열에 위치시키는 부드러운 서정성을 남김없이 들려준다. 어느 모로 보나 대단한 성공작이다. 이 음반으로 로이드-존스의 재능을 알아보는 이들이 더 늘어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www.naxos.com

Naxos New Rel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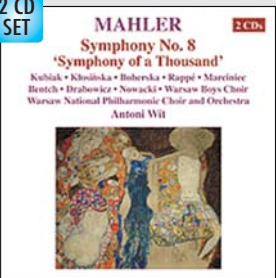


Naxos 8.557670

하이페츠 :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명선율 편곡작품들

이수연(바이올린) / 마이클 체르토크(피아노)

한국의 젊은 바이올린 기대주인 이수연이 하이페츠가 바이올린을 위해 편곡해 놓았던 귀에 익은 명선율들을 연주하였다. 디니쿠의 호라스타카토, 쇼팽의 야상곡, 립스키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 글루크의 정령의 춤, 포스터의 금발의 제니, 드뷔시의 콜리워의 케이코르크,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의 탕고 등을 1683년에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매혹적인 사운드로 만날 수 있다.



2 CD SET

MAHLER
Symphony No. 8
'Symphony of a Thousand'

Kublik • Schenker • Huberka • Rappi • Marciniec
Bentch • Drabowicz • Nowacki • Warsaw Boys Choir
Warsaw National Philharmonic Choir and Orchestra
Antoni Wit

말러 : 교향곡 8번 ‘천인의 교향곡’

바르바라 쿠비아크, 이자벨라 콜로신스카, 마르타 보베르스카(소프라노) / 야드비가 라페(메조소프라노) / 에바 마르치니에츠(알토) / 티모시 벤츄(테너) / 보이테크 브라보비츠(바리톤) / 피오토르 노보츠카(베이스) / 바르샤바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 안토니 비트

8번의 녹음만을 남겨둔채 오래도록 미완으로 남아있었던 낙소스의 말러 교향곡 사이클이 드디어 완성되었다. 사이클의 절반이상(2,3,4,5,6번)을 책임졌던 폴란드의 대표지휘자 안토니 비트가 지휘봉을 잡았고, 기존의 폴란드 국립방송교향악단이 아닌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악단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

Naxos 8.550533-34



Naxos 8.557728

모차르트 : 레퀴엠 K. 626

마리아 알란(소프라노) / 안네 베타(메조소프라노) / 마르쿠스 울만(테너) / 마르틴 슈넬(베이스) / 라이프치히 체임버 오케스트라 / 모르텐 솔트-엔센

솔트 엔센의 모차르트 레퀴엠은 한마디로 원전연주를 지향한 개량악기 연주라고 할 수 있다. 색다른 판본대신 가장 일반적인 쾰슈마이어 판본을 사용하였으나, 전곡을 41분에 마무리짓는 기민한 템포, 실내악 수준의 소편성, 비브라토를 절제한 현악 앙상블의 사운드 등을 통해 다른 연주들과 확연히 차별되는 이들만의 개성적인 연주를 완성하였다.



Naxos 8.559451

유태 현악사중주들(미요, 빈더, 손달, 조른, 세쿤다)

줄리어드 현악사중주단 / 빙엄 현악사중주단 / 보흐만 현악사중주단

프랑스 6인조의 일원인 미요의 에튀드는 프로방스 지방 유태인 사회의 전통음악에 기반을 둔 작품. 유명한 줄리어드 사중주단이 연주를 맡았다. 세쿤다의 곡은 러시아 유태인의 전통음악을 차용한 작품이며, 손달의 곡은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도곡이다. 존의 쿨 니드라이는 유명한 유태찬가의 선율을 사용하였다.



Naxos 8.559260

드러맨 : 현악사중주 2,3번

그를 또 컨템포러리 뮤직

폴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유명작곡가이자 줄리어드의 명교수로 많은 후진을 양성했던 제이콥 드러맨(1928-96)의 실내악作品集. 현악사중주 1번이 실험적인 음악에 몰입하던 시절인 작품인 반면, 2번은 신고전주의로 회귀했던 이후의 산물이다. 마립바 독주곡 '겨울의 속성에 대한 반영'은 드뷔시에 대한 오마주로 겨울의 여러 이미지들을 마립바의 색다른 음향으로 표현한 것. 작곡가의 아들이 마립바 솔로를 맡았다.



Naxos 8.557270

멘델스존 & 브루흐 : 현악팔중주

아우어 현악사중주단 / 코다이 현악사중주단

차분한 서정미를 담은 2악장, 한여름밤의 꿈을 빼닮은 3악장, 화려한 무궁동풍의 4악장이 어우러진 멘델스존의 8중주는 작곡가의 실내악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작품의 하나다. 브루흐의 만년 작품인 8중주는 더블베이스의 저음이 작품의 두툽한 조직감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관록의 코다이사중주단이 자신들의 제자백인 아우어 사중주단과 호흡을 맞추었다.



Naxos 8.557344

헨체 : 기타作品集 1집

콜린 발처(테너) / 데보라 할라스(피아노) / 프란츠 할라스(기타) / 제바스티안 헤스(첼로) / 카르스텐 나겔(바순) / 소피아 로이터(비올라) / 고트프리트 슈나이더(바이올린)

이제 현대음악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헨체가 기타음악을 다수 작곡했다는 사실은 그리 알려지지 않았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표현한 '로얄웨딩뮤직'은 기타의 한계를 한층 확대시킨 도전적인 작품인 반면, 7개의 새로운 민요는 제목 그대로 오스트리아 농가의 소박한 민요들에 기반을 둔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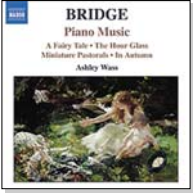


Naxos 8.557459

세이사스 : 하프시코드作品集 1집

데보라 할라스(하프시코드)

카를로스 데 세이사스(1704-42)는 바로크시대 스페인의 대표적인 건반 비르투오조로 활약했으나, 38의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다. 짧은 생애동안 100여편에 달하는 건반소나타를 남겼는데, 이들은 스카틀라타의 그것에 필적하는 우수한 완성도를 보여준다. 특히 현란한 기교를 요구하는 19, 24, 44번이 인상적이다. 브라질 출신의 하프시코드주자 데보라 할라스가 1734년에 제작된 하스 모델의 복제품을 사용하였다.



Naxos 8.557842

브리지 : 피아노작품집 1집

애шли 워스(피아노)

프랑크 브리지는 20세기 전반기에 활동했음에도 후기낭만시대의 감성적인 음악세계를 고수했던 인물이다. 드뷔시에 필적하는 화려한 색감의 관현악곡들이 유명하나, 그의 피아노작품들 역시 주목할 가치가 많다. 살롱풍의 감미로움을 추구했던 초기작서 전쟁이후 어둡고 심각한 음악으로 변모했던 후기작까지 망라하였으며, 작품의 성격에 따라 표정을 달리하는 영국의 기대주 애шли 워스의 다채로운 표현력이 일품이다.



Naxos 8.557450

C.P.E. 바흐 : 건반소나타와 론도

크리스토퍼 힌터후버(피아노)

JS 바흐의 둘째 아들인 카를 필립 엠마누엘은 바로크-고전 전환기를 대표하는 대작곡가다. 생전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등의 경쟁한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고, 감수성 양식이라고 알려진 음악스타일은 낭만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있었다. 라히프치이 바흐 콩쿠르 우승자인 오스트리아의 신예 크리스토프 힌터후버가 고전양식과 감미로운 선율미를 겸비한 건반소나타들을 단정한 터치로 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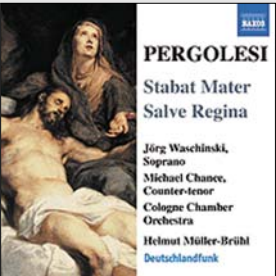


Naxos 8.553972

하이든 : 피아노변주곡집

예뇌 안도(피아노)

최근들어 하이든이 남긴 피아노작품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피아노의 맑은 울림과 작곡가의 천진한 악상이 잘 어울리기 때문이라. 낙소스 피아니스트의 대부 안도가 현악사중주 '황제' 2악장, 독일국가, 그리고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널리 알려진 '신이여 황제를 지키소서'에 의한 변주곡을 비롯하여 작곡가가 남긴 피아노변주곡 여섯을 녹음하였다.



Naxos 8.557447

페르골레지:
스타바트 마테르, 살베 레지나

요르크 바스친스키(메일소프라노) / 마이클 찬스(카운터테너) /
필른 체임버 오케스트라 / 헬무트 뮐러-브뤼

26세로 요절한 비운의 작곡가 페르골레지. 그의 '스타바트 마테르'는 오페라 '마님이된 하녀'와 함께 그의 이름을 아직도 잊지 못하게 만든 걸작 중곡이다. 많은 음반이 있으니 이 음반은 대단히 독특하다. 두 성인남성이 솔리스트로 기용된 것. 관록의 카운터테너 마이클 찬스가 참여한 점도 주목할 만하며, 카스트라토를 연상케 하는 남성소프라노 바스친스키의 전율적인 음성이 이 음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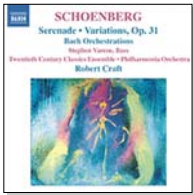


Naxos 8.557776

피르스터 : 교향곡 4번, 축전서곡, 나의 젊은시절

슬로바키아 방송교향악단 / 란스 프리델

체코 작곡가 포에르스터는 야나체크, 수크 등과 함께 스메타나, 드보르작으로 계승되어온 이 나라의 민족주의 음악계보의 주요 계승자였다. 그는 주로 오페라를 비롯한 성악곡들에서 두각을 드러내었으나, 후기낭만관현악의 전통과 자국의 민족적인 색채를 멋지게 접목시킨 다섯 편의 교향곡 역시 우수하다. 교향곡 4번 '부활절야'는 브루크너와 말러, 그리고 드보르작의 그림자가 함께 느껴지는 작곡가의 걸작 교향곡이다.



Naxos 8.557522

쇤베르크 : 세레나데, 관현악을 위한 변주곡, 바흐 관현악편곡

스티븐 바코(베이스) / 20세기 클래식 앙상블 /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 로버트 크래프트

쇤베르크의 직계제자가 또 하나의 주목할만한 음반. 작곡가의 가장 규모가 큰 관현악곡인 변주곡 Op.31, 7개의 악기와 베이스 독창을 위한 세레나데, 3편의 바흐 작품의 관현악편곡을 수록하였다. 영국이 자랑하는 베이스 스티븐 바코가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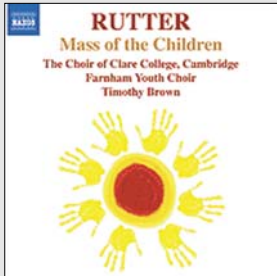


Naxos 8.557135

팔로모 : 안달루시아 야상곡, 스페인 가곡들

마리아 바요(소프라노) / 페페 로메로(기타) / 세비아 로얄 심포니 / 라파엘 프뤼벡 드 부르고스

마리아 바요, 페페 로메로, 라파엘 프뤼벡 드 부르고스, 스페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다. 로렌초 팔로모(1938년생)은 유테, 무슬림의 흔적과 플라멩코가 공존하는 자신의 고향 안달루시아의 민속음악에 기반한 독특한 음악을 추구하는 작곡가이다. 페페 로메로를 위해 작곡한 기타협주곡 풍의 안달루시아 야상곡과 이국적인 정취로 가득한 스페인의 노래를 수록하였다.



Naxos 8.557922

러터 :
어린이를 위한 미사, 그림자, 결혼 칸티클

앵해러드 그루피드 존스(소프라노) / 제레미 후 윌리엄스(바리톤) /
클레어 컬리지 콰이어 / 클레어 체임버 앙상블 / 팀 프라운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었던 낙소스 음반의 하나였던 레퀴엠에 이어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러터의 종교합창곡집이 등장하였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러터가 육성했던 클레어 칼리지 합창단이 연주를 맡았고, 작곡가 본인이 직접 프로듀싱을 맡았다. 소년들의 맑은 음성이 사랑스러운 어린이를 위한 미사와 기타 반주의 연가곡 '그림자', 제목에 잘 어울리는 순결한 아름다움을 담은 '웨딩 칸티클'이 수록되었다.



Naxos 8.557691

엘-코리 : 관현악작품집

콜롱 오케스트라 / 피에르 데르보

레바논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 베카라 엘 코리(1957년생)는 중동지역의 전쟁의 참화를 자신의 뛰어난 관현악법을 통해 음악으로 표현함으로써 세계음악계의 주목을 받아왔던 인물이다. 본 음반에 수록된 '불꽃 속의 베이루트', '관현악을 위한 레퀴엠', '독수리의 춤' 등도 그의 전쟁시리즈에 포함되는 작품들. 1992년 세상을 떠난 프랑스의 거장 피에르 데르보가 1983년 완성한 음반으로 포틀랑의 음원을 재발매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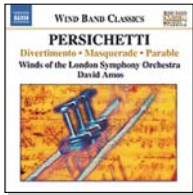


Naxos 8.559289

코츠 : 교향곡 1, 7, 14번

레이본드 커프스(탐파니) /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 / 지거란트 오케스트라 / 호르헤 로테르, 크리스토프 포텐, 올라프 헨홀트(지휘)

글로리아 코우츠(1938년생)는 교향곡과 같은 정통적인 음악의 틀 속에서 독창적인 소리의 세계를 구현해온 작곡가다. 현의 치밀한 글리산도 사이로 탐파니가 독주악기 수준으로 맹활약하는 14번, 중국 풍 5음계에 기초한 현악합주곡인 1번, 그리고 작곡가의 걸작교향곡인 7번은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담았다.



Naxos 8.570123

퍼시체티 : 디베르티멘토, 가면무도회, 패러블 IX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관악 및 타악 앙상블 / 데이비드 에이모스

빈센트 퍼시체티(1915-87)는 50년대 미국 고등학교와 대학교들 사이에서 급증했던 심포닉 밴드들을 위해서 다수의 인기작들을 작곡하였고, 이러한 학생운동의 중요한 수호자의 한 사람이기도 했다. 음반에 수록된 그의 작품들은 현악기가 빠진 제한된 편성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색채감과 심포닉한 구성을 보여준다. 런던 심포니의 멤버들이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이 음반은 하모니아 문디의 음원을 재발매한 것.



Naxos 8.557768

살롱 오케스트라 애청곡 4집

아넷 포스텔(보컬) / 슈바덴 살롱 오케스트라 / 게오르크 후버

이 음반은 최고의 환락도시로 명성을 누렸던 1930년대의 베를린에서 가장 인기있었던 작곡가들이었던 헤이만, 빙클러, 크로이더 등이 카바레와 오페레타 무대를 위해 작곡했던 히트송들을 수록하였다. 독일 최고의 카바레 가수이자 바일 해석가인 아넷 포스텔은 금방이라도 뽀연 담배연기 사이로 드러나는 마블린 디트리히의 고혹적인 얼굴과도 같은 농익은 퇴폐미를 멋지게 재현하고 있다.



Naxos 8.557944

바르산티 : 여섯 개의 리코더 소나타 Op.1

바나비 말프(리코더) / 허짓 브라신(하프시코드) / 루이스 킹(첼로)

프란체스코 바르산티(1690~1772)는 당시 영국을 휩쓸던 이탈리아 음악의 열풍에 힘입어 이 나라에 진출했던 일군의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한 사람이다. 런던과 에딘버러를 중심으로 플루트와 오보에의 명인으로 활동했고, 작곡가로서도 오페라와 기악곡들 다수 남겼다. 리코더를 위한 여섯 편의 소나타 Op.1은 그의 대표적인 기악곡으로 이 악기에 정통했던 작곡가의 장점이 여실히 발휘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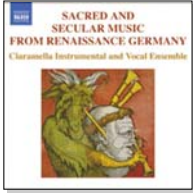


Naxos 8.557337

드 라 알레 : 로빈과 마리온의 놀이

토누스 페레그리누스 / 안소니 피츠

오르가눔 악파와 딘스터블 음반을 통해 중세음악의 새 강자로 떠오른 토누스 페레그리누스가 13세기 유명한 트루베르였던 아당 드 라 알레의 중세음악극에 도전하였다. 영국관객들을 위한 공연으로 설정했다. 무대 오른쪽에서 나레이터가 원래의 중세 프랑스어로 극의 내용을 진행하면 왼쪽의 해설가가 영어로 이를 다시 번역하는 식이다. 신비로운 중세의 선율과 씨꿀벌적인 공연관의 분위기가 어우러진 재미있는 음반.



Naxos 8.557627

르네상스 시대 독일의 종교음악과 세속음악

치아라멜라 인스트루멘탈 & 보컬 앙상블

숨, 색벗, 백파이프 등의 르네상스 관악기들이 만들어내는 고아한 울림의 향연. 뒤파이의 유명한 상송 'Se la face ay pale', 이자크의 곡으로 추정되는 미사 'Je ne fay plus' 등을 비롯한 르네상스 시대의 인기곡들은 당대의 여러 유무명 음악가들에 의해 즉흥적인 기악편곡으로 옮겨졌다. 이들을 고관악기 합주와 오르간으로 연주하였고, 몇편의 세속 및 종교성악곡들 역시 유리같이 투명한 보컬 앙상블로 담았다.



Naxos 8.557432

삼마르티니 : 평화의 천사의 눈물, 심포니

실비아 마펠리(소프라노) / 아인호아 솔라루체(메조소프라노) / 조르조 티보니(테너) / 카프리치오 이탈리아노 앙상블 / 다니엘레 페라리

이탈리아 작곡가 삼마르티니는 독일의 슈타미츠와 더불어 초기고전교향곡의 주춧돌을 놓았던 인물이다. 그는 다수의 종교곡들도 남겼으나, 대부분은 유실되고 말았다. 이번에 최초로 녹음되는 칸타타 '평화의 천사의 눈물'은 그런 의미에서 더욱 값지다. 작품을 지배하는 남곡 특유의 아름다운 멜로디와 화려한 성악기교가 인상적인 작품.



Naxos 8.557780

도니제티 : 가곡집

데니스 오닐(테너) / 잉그리트 서저너(피아노)

벨칸토 오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도니제티. 그는 오페라 외에도 다수의 가곡들을 작곡하였다. 전형적인 나폴리 민요풍의 노래들에서부터 설려, 위고, 메타스타시오 등의 시에 곡을 붙인 예술가곡에 이르기까지 오페라에서 맛보지 못했던 작곡가의 일면을 만나게 된다.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의 간판 스타인 데니스 오닐이 벨칸토의 진수를 들려준다. 성악도들의 필청 음반.



Naxos 8.557442

베이스를 위한 오페라 아리아(베르디, 로시니, 벨리니, 구노 외)

하오 지양 티안(베이스) / 슬로바키아 방송교향악단 / 알렉산더 라흐바리

1991년 데뷔 이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의 단골손님으로 자리잡은 중국출신의 베이스 하오 지양 티안의 독, 자신의 장기와도 같은 베르디, 로시니, 벨리니, 풍키엘리 등의 이탈리아 오페라는 물론, 구노와 마스네 그리고 차이코프스키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통해 자신의 다재다능함과 우수한 기량을 맘껏 뽐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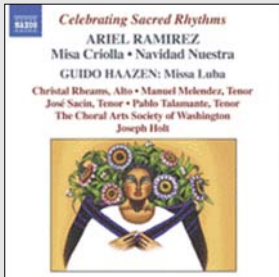


Naxos 8.557893

모차르트 : 돈 조반니(발췌)

보 스코부스(돈 조반니) / 레나토 지롤라미(레포렐로) / 아드라안 피에츨카(돈나 안나) / 레지나 쇠르크(돈나 엘비라) / 일디코 라이몬디(제물리나) / 토르스텐 케를(돈 오타비오) / 아누스 모나르해(기사장) / 니콜라스 에스테르하지 신포니아 / 미카엘 할라스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베이스 보 스코부스, 그가 노래하는 돈 조반니를 만난다. 기존 전곡음반에서 주요부분들을 발췌한 것으로, 호색한으로 분한 보 스코부스의 매력적인 노래와 헝가리 국립 오페라의 주역들의 우수한 앙상블이 빛난다. 절충주의적인 해석을 지향하는 할라스의 단정한 지휘도 훌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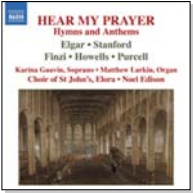


Naxos 8.557542

라미레즈 :
미사 크리올라 / 미사 루바 / 나비다드 누에스트라

크리스탈 레암스(알토) / 마누엘 멜렌데즈, 호세 사신, 파블로 탈라만테(테너) / 워싱턴 코랄 아츠 소사이어티 / 조셉 홀트

남미와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선율로 옮겨진 카톨릭 미사 두 편. 아르헨티나 작곡가 라미레즈의 미사 크리올라와 선교사 하첸이 콩고의 전통 리듬과 선율을 채집하여 편곡한 미사 루바는 LP시절부터 국내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월드뮤직의 고전들이다. 이번 신보가 이들 작품에 대한 추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미구합창단의 연주이나 남미출신의 솔리스트와 기악앙상블이 향토적인 채취를 충분히 표현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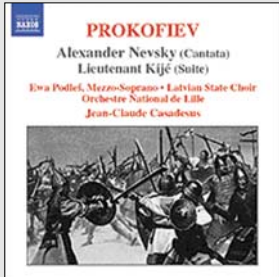


Naxos 8.557493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찬송가와 앤섬)

카리나 고뱅(소프라노) / 매튜 라킨(오르간) / 엘로라 세인트 존스 콰이어 / 노엘 에디슨

포레의 장 라신 찬가, 로티의 십자가형, 엘가의 영원한 빛,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멘델스존의 내 기도를 들어소서 등등 본 음반에는 17세기 영국에서부터 20세기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성당을 가리지 않고 즐겨 불려졌던 유명 종교합창곡들을 엄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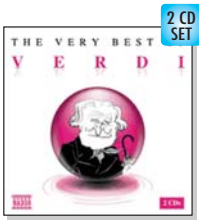


Naxos 8.557725

프로코피예프 :
알렉산더 네프스키, 키제 중위 모음곡

에바 포들레스(알토) / 릴 국립 교향악단 / 장 클로드 카자드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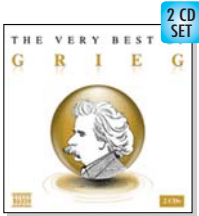
몽고와 튜튼기사단으로부터 러시아를 구한 알렉산더 네프스키. 프로코피예프는 아이젠슈타인의 동명영화를 위해 스펙터클한 영화음악을 완성하였다. 이 음반은 하모니아문디의 음원을 재발매한 것으로 작품의 거대한 스케일과 드라마틱한 박력을 충실히 그려내었다. 폴란드의 국민 성악가 에바 포들레스가 솔로를 맡았고, 작곡가의 또 다른 인기작인 키제중위 모음곡을 함께 담았다.



Naxos 8.552121-22

THE VERY BEST OF VER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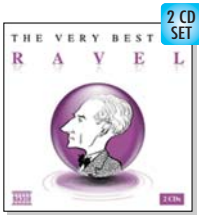
운명의 힘, 나부코, 에르나니, 맥베스, 루이자 밀러,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가면무도회, 레퀴엠, 라 트라비아타, 돈 카를로, 아이다, 오텔로, 팔스타프의 대표장면들.



Naxos 8.552123-24

THE VERY BEST OF GRI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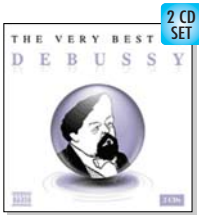
홀베르크 모음곡 중 전주곡, 서정모음곡의 단편들, 바이올린소나타 3번 알레그로, 페르귄트 발췌, 현악사중주 1번 2악장, 2개의 엘리지 소품, 6개의 가곡 중 백조, 2개의 멜로디, 지그루트 요르살파 중 오마쥬 행진곡, 첼로소나타 알레그로, 바이올린소나타 2번 알레그로, 심포닉댄스 중 알레그로, 피아노협주곡 1악장



Naxos 8.552125-26

THE VERY BEST OF RAVEL

우아하고 감상적인 왈츠, 소나티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 거울, 스페인 광시곡, 바이올린소나타 중 블루스, 왼손을 위한 협주곡, 라 발스,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2번, 물의 유희, 현악사중주, 밤의 가스파르 중 온딘, 치간느, 쿠프랭의 무덤 중 미뉴엣, 엄마거위 모음곡, 피아노협주곡 2악장, 볼레로



Naxos 8.552127-28

THE VERY BEST OF DEBUSSY

야상곡, 현악사중주 1번,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판화, 첼로소나타 프롤로그,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월광, 바이올린소나타, 24곡의 전주곡 발췌, 바다,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3막 1경, 알토색소폰과 관현악을 위한 랩소디, 영상 중 이베리아, 레베리, 기쁨의 섬, 렌트보다 느리게, 아라베스크 1번, 어린이 코너 중 골리워의 케이크워크



Naxos 8.552129-30

THE VERY BEST OF SHOSTAKOV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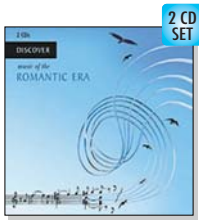
축전서곡, 현악사중주 8번 3악장, 피아노트리오 2번 3악장, 첼로협주곡 1번 1악장, 24개의 프렐류드와 푸가의 일부, 교향곡 1, 5, 7, 9, 10, 13, 15번의 대표악장들, 첼로소나타 4악장, 황금시대 중 폴카, 바이올린협주곡 1번 4악장, 재즈모음곡 중 왈츠, 피아노협주곡 1, 2번 2악장, 피아노오중주 3악장, 현악사중주 7번 3악장, 타히티 트로트, 등에 모음곡 중 로망스, 3개의 환상적인 춤곡 중 폴카



Naxos 8.558160-61

Discover Music of the Baroque Era

바로크 시대의 대표곡들과 함께 130페이지의 두툼한 북릿이 함께 제공됩니다. 헨델, 바흐, 스카를라티, 가브리엘리, 몬테베르디, 스베를링크, 쉬츠, 로스, 북스테후데, 파헬렐, 뮐러, 샤르팡티에, 퍼셀, 코렐리, 비발디, 텔레만, 쿠프랭, 라모의 대표곡들을 2장의 CD에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Naxos 8.558155-56

Discover Music of the Romantic 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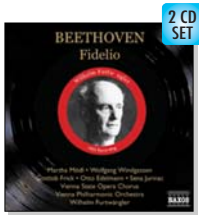
로맨틱 시대의 대표곡들과 함께 160페이지의 두툼한 북릿이 함께 제공됩니다. 로시니, 도니제티, 베르디, 바그너의 오페라, 글렝카, 보로딘, 스메타나, 드보르작, 그리그의 국민주의 관현악곡들, 그리고 포레, 브람스, 슈만, 말러, 라흐마니노프, 엘가, 베를리오즈, 리스트, 쇼팽, 슈베르트,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의 다양한 장르에 걸친 걸작들을 2장의 CD에 빼곡히 담았습니다.



www.naxos.com

Naxos Great Recordings Series

레코딩 역사에 길이 남을 명연들, 이제 Naxos Historical에서 만나다!!



Naxos 8.111020-21

베토벤 : 피델리오 (1953년 10월 녹음)

마르타 뒤들, 피델리오 / 볼프강 빈트가센, 플로레스탄 / 고틀로프 프리, 로코 / 오토 에델만, 돈 피차로 / 세나 유리나츠, 마르첼리나 / 루돌프 쇼크, 야키노 / 알프레트 陶, 돈 페르난도 /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지휘 / 빈 국립 오페라 합창단과 관현악단

*북각 : 마크 오버트-손



Naxos 8.110325-27

벨리니 : 노르마 (1953년 4, 5월 녹음)

마리아 칼라스, 노르마 / 마리오 필리페스키, 폴리오네 / 에베 스티냐니, 아달지자 / 니콜라 로시 레메니, 오로베소 / 파올로 카롤리, 플라비오 / 리나 카발라리, 클로틸데 / 톨리오 세라핀, 지휘 / 밀라노 라 스칼라 오페라 합창단과 관현악단

*북각 : 마크 오버트-손



Naxos 8.111071-73

보로딘 : 이고르 공 (1951년 녹음)

안드레이 이바노프, 이고르 공 / 에브게냐 스몰렌스카야, 야로슬라브나 / 세르게이 레메세프, 블라디미르 / 마크 레이첸, 콘차크 / 알렉산더 멜릭 파사예프, 지휘 / 모스크바 볼쇼이 오페라 합창단과 관현악단

*북각 : 워드 마스톤



Naxos 8.110131-32

도니제티 :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1953년 1, 2월 녹음)

마리아 칼라스, 루치아 / 주제페 디 스테파노, 에드가르도 / 티토 고펬비, 엔리코 / 라파엘레 아리에, 라이몬도 / 발리아노 나탈리, 아르투로 / 안나 마리아 카날리, 알리사 / 톨리오 세라핀, 지휘 / 피렌체 마지오 무지칼레 오페라 합창단과 관현악단

*북각 : 마크 오버트-손



Naxos 8.111007

레하르 : 메리 위도우 (1953년 4월 녹음)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 한나 / 에리히 쿤츠, 백작 / 니콜라이 겐타, 카미에 / 엠미 루스, 발렌시엔느 /
오토 악케르만, 지휘 /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복각 : 마크 오버트-손



Naxos 8.111016-17

레하르 : 미소의 나라 (1953년 4, 6월 녹음)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 리자 / 니콜라이 겐타, 왕자 / 에리히 쿤츠, 구스틀 / 엠미 루스, 미 /
오토 악케르만, 지휘 /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복각 : 마크 오버트-손



Naxos 8.111024

레온카발로 : 팔리아치 (1954년 6월 녹음)

마리아 칼라스, 넷다 / 주제페 디 스테파노, 카니오 / 티토 고펬, 토니오 / 롤란도 파넬라이, 실비오 /
니콜라 몬티, 뱀페 / 툴리오 세라핀, 지휘 / 밀라노 라 스칼라 오페라 합창단과 관현악단

*복각 : 마크 오버트-손



Naxos 8.111025

마스카니 :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1953년 6, 8월 녹음)

마리아 칼라스, 산투차 / 주제페 디 스테파노, 투리두 / 롤란도 파넬라이, 알피오 / 안나 마리아 카날리, 루치아 /
에베 티코치, 롤라 / 툴리오 세라핀, 지휘 / 밀라노 라 스칼라 오페라 합창단과 관현악단

*복각 : 마크 오버트-손



Naxos 8.111026-27

푸치니 ; 나비부인 (1955년 8월 녹음)

마리아 칼라스, 초초 / 니콜라이 겐타, 핀커튼 / 루치아 다니엘리, 스즈키 / 마리오 보리엘로, 샤를리스 /
레나토 에르콜라니, 고로 /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 / 밀라노 라 스칼라 오페라 합창단과 관현악단

*복각 : 마크 오버트-손



Naxos 8.111030-31

푸치니 : 마농 레스코 (1954년 7월 녹음)

리치아 알바네제, 마농 / 유시 비올링, 그리외 / 로버트 메릴, 레스코 / 요넬 페를레아, 지휘 /
로마 오페라 합창단과 관현악단

*복각 : 마크 오버트-손



Naxos 8.111028-29

로시니 : 이탈리아의 터키인 (1954년 8, 9월 녹음)

마리아 칼라스, 피오릴라 / 니콜라 로사-레메니, 젤림 / 니콜라이 겐타, 나르치소 / 올란도 가르디노, 차이다 /
피에로 드 팔마, 알바차르 / 자난드레아 가바체니, 지휘 / 밀라노 라 스칼라 오페라 합창단과 관현악단

*복각 : 마크 오버트-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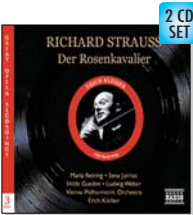


Naxos 8.111036-37

슈트라우스 2세 : 박쥐 (1955년 4월 녹음)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 로잘린데 / 니콜라이 겐타, 아이젠슈타인 / 헬무트 크렘스, 알프레드 /
리타 슈타라이히, 아델레 / 에리히 쿤츠, 팔케 /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 /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복각 : 마크 오버트-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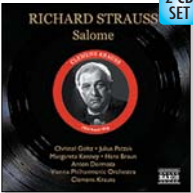


Naxos 8.111011-13

R 슈트라우스 : 장미의 기사 (1954년 5,6월 녹음)

마리아 라이닝, 백작부인 / 루드비히 베버, 옥스남작 / 세나 유리나츠, 옥타비안 / 힐데 귀덴, 조피 /
힐데 뢰셀, 마이단, 안나나 / 발터 베리, 경찰 / 에리히 클라이버, 지휘 / 빈 국립오페라 합창단과 관현악단

*복각 : 마크 오버트-손



Naxos 8.111014-15

R. 슈트라우스 : 살로메 (1954년 3월 녹음)

크리스텔 골츠, 살로메 / 율리우스 파차, 헤롯 / 마가렛타 켄니, 헤로디아스 / 한스 브라운, 요한나 /
안톤 데르모타, 나라보트 / 클레멘스 크라우스, 지휘 /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복각 : 마크 오버트-손



Naxos 8.111042-44

베르디 : 아이다 (1955년 7월 녹음)

진카 밀라노프, 아이다 / 유시 비올링, 라다메스 / 페도라 바르비에리, 암네리스 / 레너드 워렌, 람피스 /
보리스 크리스토프, 파라오 / 요넬 페를레아, 지휘 / 로마 오페라 합창단과 관현악단

*복각 : 마크 오버트-손



Naxos 8.110300-01

베르디 : 라 트라비아타 (1953년 9월 녹음)

마리아 칼라스, 비올레타 / 프란체스코 알바네제, 알프레도 / 우고 사바레세, 제르몽 / 이네스 마리에타, 안나나 /
가브리엘레 산티니, 지휘 / 토리노 방송교향악단 & CETRA 합창단

*복각 : 워드 마스톤



Naxos 8.110308-10

바그너 : 로엔그린 (1953년 8월 녹음)

볼프강 빈트가센, 로엔그린 / 엘리노어 스테버, 엘자 / 헤르만 우데, 텔라문트 / 아스트리드 바르나이, 오르트룬트 / 요제프 그라인들, 하인리히 / 요제프 카일베르트, 지휘 /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합창단과 관현악단

*복각 : 마크 오버트-손



Naxos 8.110787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협주곡 3번(1951년 녹음)

베토벤 : 피아노협주곡 5번(1952년 녹음)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피아노 / 프리츠 라이너, 지휘 / RCA 빅터 심포니 오케스트라

*복각 : 마크 오버트-손



Naxos 8.111145

R. 슈트라우스 : 4개의 마지막 노래(1953년 녹음), 아라벨라 발췌(1954년 녹음)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 소프라노 / 오토 악케르만 & 로브로 폰 마타치치, 지휘 / 필하모니아

*복각 : 마크 오버트-손



Naxos 8.110306

슈만 : 피아노 오중주(1951년 녹음) / 브람스 : 피아노 사중주 2번(1952년 녹음)

클리포드 커즌, 피아노 / 부다페스트 사중주단

*복각 : 마크 오버트-손



Naxos 8.110307

브람스 : 피아노 오중주(1950년 녹음) / 드보르작 : 피아노 오중주(1953년 녹음)

클리포드 커즌, 피아노 / 부다페스트 사중주단

*복각 : 마크 오버트-손



Musikproduktion

Dabringhaus und Grimm[MD&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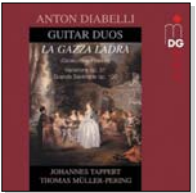


MDG 603 1390-2

Onslow : String Quintets Op.38 & 67

Quintett Memento Musicale

실내악 애호가들을 위한 온슬로우의 세 번째 선물영국 혈통의 프랑스 작곡가 조르쥬 온슬로우는 모두 70여 편에 달하는 실내악 작품들을 남겼다. 국내 실내악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기존 두 음반에 이어 이 작곡가의 세 번째 실내악 작품집이 등장하였다. 세컨드 첼로 대신 더블베이스를 덧붙여 관현악에 버금가는 알차고 묵직한 사운드를 추구한 Op.67에 주목하시라.



MDG 603 1389-2

Diabelli : Works for Guitar Duo (Grand Serenade 외)

Johannes Tappert & Thomas Muller-Pering, guitars

베토벤의 변주곡을 통해 낯익은 이름이지만, 작곡가로서 디아벨리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19세기 초반의 대표적인 기타음악 작곡가였던 그의 진면목을 확인하게 된다. 유명한 로시니의 '도둑 까치' 서곡의 기타 듀오 편곡, 에코효과를 활용한 세레나데 등의 흥미진진한 작품들을 담았다. 바이올린의 스트라디바리우스에 비견될 만한 유명한 기타제작자였던 슈타우퍼의 오리지널 악기 둘을 이번 녹음에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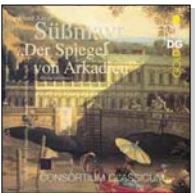


MDG 619 1379-2

Paganini : Caprices Op.1 (arr. For Solo Saxophone)

Raaf Hekkema, Saxophone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파가니니의 카프리스파가니니가 작곡한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24개의 카프리스 이 악기를 위한 작품들 중 연주의 난해함에 있어서 최선두를 다룰 난곡이다. 특히 마지막 24번은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루토스와프스키 등의 작곡가들에게 창조적 영감을 안겨주었던 유명한 작품. 이 작품을 색소폰의 관능적인 음색으로 듣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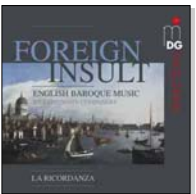


MDG 301 1380-2

Sussmayr : Der Spiegel von Arkadien (Wind Music)

Consortium Classicum

모차르트의 제자, 쥐스마이어의 음악들모차르트의 제자로 먼저 기억되는 쥐스마이어. 그가 작곡한 오페라 '아카디아의 거울' (Spiegel von Arkadien)은 스승의 걸작들인 '마술피리' 나 '돈 조반니'에 필적하는 큰 인기를 누렸다고 한다. 당시 여러 작곡가들이 이 오페라에 기초한 편곡들을 다수 남겼는데, 음반에 수록된 목판 버전은 요한 뎀트의 편곡이다.



MDG 505 1381-2

Foreign Insult : English Baroque Music by Foreign Composer

La Ricordanza

이방인 작곡가들이 완성한 영국 바로크 음악들퍼셀의 급사이후 음악적 침체기에 접어든 영국. 대신 대륙에서 건너온 음악가들이 이 나라의 음악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본 음반에는 당시 영국에서 활약했던 일군의 외국인 작곡가들(헨델, 바르산티, JC 바흐, 아벨, 핑거, 마타이스)의 협주곡과 실내악 작품을 재치있게 모았다.



MDG 645 1401-2

Nancarrow : Studies for Player Piano

Bosendorfer Ampico Player Piano

구멍 뚫린 종이 테이프를 이용한 자동악기인 플레이어 피아노. 미국의 괴짜 작곡가 낸카로우는 템포랄 푸가라는 자신의 독창적인 대위음악을 위해 이 악기의 기계적인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빠른 템포와 복잡한 리듬형을 이 기계장치를 활용하여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 음반은 작곡가가 직접 천공한 종이 테이프와 작곡가의 소장품이었던 뵘젠도르프 플레이어 피아노를 사용하여 녹음되었다.



MDG 330 1382-2

Grieg : Peer Gynt, Mozart Piano Sonatas (arr for 2 Pianos)

Pianoduo Trenkner / Speidel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하는 모차르트 피아노소나타본 음반에 수록된 모차르트의 피아노소나타들은 그리그에 의해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버전으로 편곡된 것들이다. 이 작업을 통해 모차르트의 천진난만한 선율들이 낭만 시대의 화려한 외형으로 재포장되었다. 더불어 작곡가의 가장 유명한 관현악곡인 '베르겐트 모음곡'이 2대의 피아노를 위한 버전으로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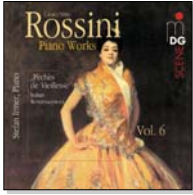


MDG 603 1388-2

Grechaninov : String Quartet Vol.2 Op. 75 & 124

Utrecht String Quartet

그레차니노프 현악사중주 시리즈의 완결작그레차니노프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제자답게 관현악분야에서 출중한 성과를 남겼으나, 그의 현악사중주들 역시 러시아의 실내악 전통을 충실히 계승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다. 특히 이국적인 분위기가 배어나오는 Op.124는 보로딘의 영향이 느껴진다. 1집을 통해 큰 호평을 얻었던 위트레흐트 사중주단이 전작에 버금가는 뛰어난 연주를 들려준다.



MDG 618 1386-2

Rossini : Piano Works Vol.4 (Peches de Vieillesse – Italian Reminiscenes)

Stefan Irmer, piano

노인 로시니가 완성한 신선한 피아노 작품들' 노년의 잘못'(Peches de Vieillesse)라는 자조적인 제목의 작품집은 만년의 로시니가 완성한 100여곡의 피아노곡과 50여곡의 성악곡 및 기악곡들로 구성되었다. 신보는 이 작품집에 포함된 피아노 작품들을 섭렵하고 있는 슈테판 이름머의 여섯 번째 음반이다. 작곡가의 천성과도 같은 낙천적인 선율이 음반 전체에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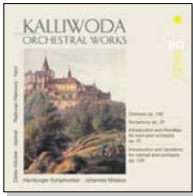


MDG 613 1385-2

Asia Piano Avantgarde Japan Vol. 1

Steffen Schleiermacher, piano

현대 피아노음악의 전도사 슈테판 슬라이어마허의 일본 현대 작품집불교적인 색채로 장식된 카즈오 후쿠시마의 작품. 토시오 호소카와가 들려주는 명상적인 분위기, 존 케이지의 영향이 느껴지는 토시오 이치야나기의 작품. 피아노를 타악기적으로 활용한 마키 이시이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조에 걸친 개성적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MDG 329 1387-2

Kalliwoda : Symphony No.3 & Overture No.8 etc.

Dieter Kl?cker, cl / Radovan Vlatkovic, horn / Hamburger Symphoniker / Johannes Moesus, cond.

19세기 보헤미아 출신 작곡가의 독특한 관현악작품들갈리보다(1801-1866)는 스메타나나 드보르작에 한참 앞서서 보헤미아 민속주의 음악의 기틀을 준비했던 작곡가이다. 그의 교향곡에는 슬라브 민속의 영향과 동유럽 특유의 화성적 색채가 느껴지며, 혼과 클라리넷을 위한 협주곡 풍의 두 작품에서도 이 지역의 우수한 관악음악 전통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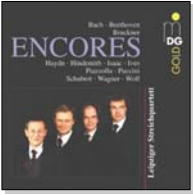


MDG 603 1396-2

Schumann: Piano Quintet
Mendelssohn: A Midsummer night's Dream

Alliage Saxophone Quartett & 장은배, piano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슈만과 멘델스존슈만의 실내악 걸작인 피아노 오중주를 4대의 색소폰과 피아노라는 독특한 악기조합으로 감상하는 재미가 각별하다. 여기에 멘델스존의 인기작 '한여름밤의 꿈'의 대표곡들을 동일한 악기편성으로 연주하였다.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지니는 다양한 매력들을 한껏 만끽하는 음반. 우리 피아니스트 장은배가 피아노 파트를 맡았다.



MDG 307 1362-2

Encores (Schubert, Beethoven, Bach, Piazzolla, Bruckner etc)

Leipzig String Quartet

실내악 애호가들을 위한 라이프치히 사중주단의 종합선물세트실내악 명가 MDG의 대표 연주단체인 라이프치히 사중주단. 그들이 이자크의 르네상스 폴리포니에서 피아졸라의 탱고에 이르기까지 6세기에 걸친 서양음악사의 흐름을 음반 하나에 축약하였다. 바흐, 하이든, 브루크너, 푸치니, 슈베르트, 아이브즈 등의 다양한 실내악 소품들을 이 음반에서 만나볼 수 있다.



MDG 343 1349-2

Brahms : Piano Music Op.116-119

Elisabeth Leonskaja, piano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의 두 번째 MDG 레코딩롱티보 콩쿠르와 퀴엘리자베스 콩쿠르를 석권하면서 구소련을 대표하는 여류 피아니스트로 각광받았던 레온스카야. 또한 리히터의 오랜 듀오 파트너로서도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이다. 그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터치로 연주하는 브람스의 후기 피아노 작품들이 각별하다. 녹음에 사용된 악기는 1901년에 제작된 슈타인웨이.

SACD



MDG 903 6396-6

Schumann : Piano Quintet
Mendelssohn : A Midsummer night's Dream

Alliage Saxophone Quartett & 장은배, piano

위의 일반CD와 동일한 내용의 SACD.

SACD



MDG 943 1349-6

Brahms : Piano Music Op.116-119

Elisabeth Leonskaja, piano

위의 일반CD와 동일한 내용의 SACD

SA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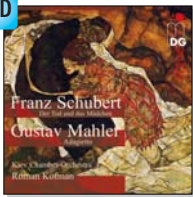
MDG 930 1382-6

Grieg : Peer Gynt
Mozart : Piano Sonatas (arr for 2 Pianos)

Pianoduo Trenkner / Speidel

위의 일반CD와 동일한 내용의 SACD

SACD



MDG 901 1315-6

Schubert-Mahler : String Quartet 'Death & Maiden', Adagietto

Kiev Chamber Orchestra / Roman Kofman, cond.

말러가 편곡한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말러는 슈베르트의 인기 현악사중주 '죽음과 소녀'을 보다 풍성한 소노라티를 드러내는 훌륭한 현악합주용 작품으로 편곡하였다. 말러의 느린 악장 중 가장 큰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5번 교향곡의 아다지오토가 멋진 커플링을 이룬다. (601 1315-2와 동일한 내용의 SACD)



MELODIYA



Maria Grinberg

마리아 그린베르그(1908-1978)는 마리아 유디나와 더불어 20세기 중반기를 대표하던 소련의 여류 피아니스트였다.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명교수 블루멘펠트와 이금노프를 사사하였고, 1935년 전 소련 콩쿠르에서 수상하면서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시작하였다.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작곡가는 베토벤이었다. 극심한 냉전체제하에서 서구에 노출될 기회가 많지 않았으나, 수차례에 걸친 베토벤 치클루스를 통해 60년대의 주요한 베토벤 해석가로 명성이 높았다. CD로 그의 연주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기에 구전되는 명성만 남았었지만, 멜로디야를 통해 다시금 복원되기 시작한 베토벤 소나타 전집을 통해 그에 대한 재평가의 길이 활짝 열렸다. 여성의 것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강렬한 터치로 연출해낸 베토벤의 초기 소나타들을 만나 보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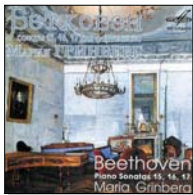
MEL CD 10 00823

Beethoven:
Piano Sonata Nos. 1, 2, 3
Recorded in 1966 & 1965



MEL CD 10 00826

Beethoven:
Piano Sonata Nos. 11, 12, 13, 14
Recorded in 1964, 1965, 1966



MEL CD 10 00827

Beethoven:
Piano Sonata Nos. 15, 16, 17
Recorded in 1964

Yakov Fliere

야코프 플리에르(1912-1977)는 러시아 피아노 악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이름이다. 연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음악원에 재직하면서 미하일 플레트네프, 빅토리아 포스트니코바, 벨라 다비도비치, 블라디미르 펠츠만, 미하일 루디 등의 여러 소련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들을 길러낸 명교사로도 명성이 대단하였다. 연주자로서 그는 로맨틱 레퍼토리에 특히 능하였다. 라흐마니노프와 리스트의 초절기교적인 작품들에 대한 연주가 특출했으며, 쇼팽 역시 그의 단골 레퍼토리였다. 이 마주르카 전곡녹음은 그가 사망 직전에 완성한 것으로, 음반이 귀한 이 위대한 피아니스트의 심원한 예술세계를 가늠케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MEL CD 10 00439

Chopin:
Mazurkas
Recorded in 1977

The Art of Galina Barinova

마리아 유디나가 스탈린이 가장 아꼈던 여류 피아니스트였다면, 가장 아꼈던 여류 바이올리니스트는 갈리나 바리노바라고 할 수 있다. 1910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피아니스트, 작곡가이자 상트 페테르부르크 음악원 교수였던 마리아 바리노바의 딸로 태어난 갈리나는 10살 때 솔로 콘서트를 가질 정도로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에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였다. 파리에서 자크 티보를 사사하였으며, 귀국 후에는 레닌그라드를 주무대로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치며, 소련 음악계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1937년 전 소련 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하였고, 2차 대전 중에는 최전선에서 무수한 위문 콘서트를 펼치며 붉은 군대의 사기진작에 일조하였다. 테헤란과 포츠담에서 있었던 연합군 수반들의 정상회담 때 특별 연주회를 가졌을 정도로 스탈린의 총애를 받았다. 특유의 섬세하고도 서정적인 표현을 통해 낭만 소품들을 빼어나게 연주했던 이 바이올리니스트의 매력을 이 음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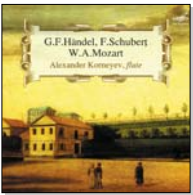


MEL CD 10 00997

슈베르트-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마스네-타이스의 명상곡, 브람스-왈츠, 스메타나-듀엣 2번, 모나스테리오-시에라 모레나, 델리우스-전설, 마방-잠들 속의 칠면조, 화이트-흑인영가 편곡, 아올린-유머레스크

The Art of Alexander Korneyev

알렉산더 코르네이에프는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이자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솔리스트이며, 러시아의 인민아티스트 칭호를 받은 이 나라의 대표적인 플루트 연주자다. 1930년에 태어난 그는 모스크바 음악원을 졸업한 직후부터 연주자로서 명성이 높았는데, 특히 냉전시대라는 큰 제약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황금플루트'라는 애칭으로 서구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본 음반은 그가 연주자로서 최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의 소중한 기록들을 담았다. 1958년에 녹음된 헨델과 슈베르트의 작품들에는 대 피아니스트 에밀 길렐스가 피아노반주를 맡았으며, 1967년 녹음인 모차르트의 플루트사중주단에서는 전설적인 베토벤 현악사중주단의 멤버들인 드미트리 치가노프, 페도르 드루지닌, 세르게이 쉬린스키와 호흡을 맞추었다. 끝으로 1965년에 녹음된 모차르트의 협주곡은 루돌프 바르샤이와 지휘하는 모스크바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MEL CD 10 01015

헨델-플루트 소나타 Op.7 in A minor, 슈베르트-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서주와 변주 Op.160, 모차르트-플루트사중주 KV285,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KV299

알렉산더 코르네이에프, 플루트 / 에밀 길렐스, 피아노 / 베토벤 현악사중주단 / 올라 에르메리, 하프 / 루돌프 바르샤이, 지휘 / 모스크바 체임버 오케스트라

The Art of Eugene Nepa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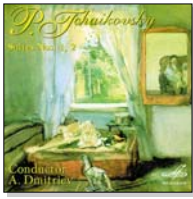
러시아의 인민아티스트인 에브게니 네팔로는 루돌프 바르샤이와 더불어 모스크바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설립하였던 주역이었다. 길렐스와 멋진 파트너십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모수드, 이바노프, 아노소프, 로제스트벤스키, 스베틀라노프 등등 러시아 거장들의 강한 신뢰를 받았던 솔리스트였으며, 냉전 시대에도 카네기 홀, 빈 악우협회 황금 홀, 로얄 페스티벌 홀 등의 서방의 대표적인 연주회장의 무대를 누렸던 러시아의 대표적인 거물급 오보에 연주자였다. 본 음반에 수록된 바로크 및 고전시대의 오보에협주곡들은 바르샤이/모스크바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것들로 60년대라는 녹음시기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아한 매무새와 참신한 매력을 발산한다. 특히 바흐의 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은 에후디 메뉴인과 협연했던 소중한 기록이다. 모차르트의 오보에사중주에는 전설적인 베토벤 사중주단의 멤버들인 드미트리 치가노프, 바딤 보리소프스키, 세르게이 쉬린스키와 호흡을 맞춘 것이다.



MEL CD 10 00880

알비노니, 벨리니, J.S. 바흐, 비발디, 텔레만, 레비틴 : 오보에 협주곡
보케리니, 헨델, 뢰일레, 비발디 : 오보에 소나타
모차르트 : 오보에 사중주단

에브게니 네팔로, 오보에 / 루돌프 바르샤이, 지휘 / 모스크바 체임버 오케스트라 외



MEL CD 10 00969

차이코프스키: 관현악 모음곡 1번 Op. 43 & 2번 Op.53

알렉산더 드미트리예프, 지휘 / 레닌그라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차이코프스키는 교향곡 4번과 5번 사이의 10여 년 동안 모두 4편의 관현악 모음곡을 완성하였다. 모차르트의 작품을 편곡한 4번 이외의 나머지 3작품은 과거 바로크 시대의 모음곡의 외형을 지향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작곡가의 관현악곡들 중에서는 대중성과 거리가 있는 작품들이나, 작곡가의 섬세한 필치와 색채적인 관현악법을 통해 완성된 다양한 성격의 소품들이 아기자기하게 엮여서 만들어내는 색다른 매력을 맛보게 된다. 지휘자 알렉산더 드미트리예프는 1977년 이후 지금까지 레닌그라드 심포니(현 상트페테르부르크 심포니)의 수장으로서 게르기에프와 더불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레닌그라드 지휘자 계보의 마지막 한 축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거친 야성이 고스란히 살아있던 페레스트로이카 이전(1978년)의 녹음임에도 서구 악단에 뒤지지 않는 유연한 흐름과 단정한 합주력이 상쾌한 인상을 남긴다.



MEL CD 10 01017

슈베르트: 교향곡 1번 D.82 & 2번 D.125

알렉산더 드미트리예프, 지휘 / 레닌그라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구소련시절부터 지금까지 러시아를 대표하는 지휘자의 한 사람으로 군림하고 있는 알렉산더 드미트리예프, 그가 러시아음악에만 정통했던 지휘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음반. 레닌그라드 심포니 역시 슈베르트 초기 교향곡의 담백한 아름다움과 로맨틱한 정취를 부족함 없이 구현해내었다.



MEL CD 60 00988

Tchaikovsky in Jazz

세르게이 질린 트리오

자그 루시예, 에우젠 시체로의 뒤를 잇는 클래식컬 재즈 피아노의 거장 탄생!

라흐마니노프로 대표되는 러시아의 위대한 클래식 피아노 전통과 아트 테이텀, 오스카 피터슨으로 대표되는 초절기교 스윙 피아노 재즈의 전통이 만났다. 차이코프스키의 사제 및 호두까기 인형을 피아노 트리오 라인업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낸 눈부신 역작! 비록 세르게이 길린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이는 없겠지만 철의 장막 저편에서 발전을 거듭했던 러시아 재즈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The Troika'와 'Flower Waltz'을 비롯 클래식과 재즈팬 모두에게 강력 추천하고픈 음반!

CD Hot Issue | 말러 교향곡 8번

말러(Mahler), 교향곡 8번

천인의 교향곡

바르바라 쿠비아크, 이자벨라 클로신스카, 마르타 보베르스카(소프라노)
아드비가 라페(메조소프라노) / 에바 마르치니에츠(알토) / 티모시 뱌쉘(테너)
보이테크 브라보비츠(바리톤) / 피오토르 노보츠키(베이스)
바르샤바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 안토니 비트

지난 2년 동안 훌륭한 말러 8번 음반이 여럿 등장하였다. 장대한 연주와 노래를 담은 샤이의 데카 레코딩, 비할 데 없는 감수성을 센세이셔널한 서라운드 사운드에 담았던 나가노의 HMF 레코딩, EMI가 최근 재발매한 베르티니의 레코딩은 흥분되고도 설득력 있는 해석과 어쩌면 가장 정교한 가창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력을 보여주었다. 안토니 비트의 이번 신보는 이성적인 해석과 스코어의 정신과 활

자 모두를 준수하는 꼼꼼함에서 베르티니의 그것에 가장 근접하였다. 그러나 비트는 베르티니가 의도적으로 피하 고자했던 광대한 스케일에 대한 감각 또한 확보하였으며, 이를 명료함의 손실 없이 표현해내었다. 녹음기술 역시 특별하다. 고요한 패시지에서는 많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고, 클라이맥스에서는 오르간과 오프스테이지 브라스가 다른 어떤 연주들보다 전체 사운드에 잘 융해된 상태로 방

대한 사운드를 포착하였다. 비트는 대단히 우수한 합창의 도움을 받았다. 3조의 연합합창단은 1악장의 서사적인 푸가에서 대위선율들을 투명하면서도 풍성한 어쿠스틱을 가지게끔 충분한 파워를 보여주며, 어린이합창단 역시 빼어나다. 텐슈테트의 음반과 마찬가지로 솔리스트들은 관현악의 짜임새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으며, 그들의 선율은 목관과 현을 위한 말러의 개성적인 서법과 어우러진다. 이는 2악장에서 '이상한 뿔피리' 스타일의 솔로들을 생동감 있게 채색한다. 1악장에서 가수들은 선로 간에 훌륭한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특별히 취약한 부분도 드러나지 않는다. 비록 독일어 발음에 다소 어색한

편이나 소프라노 Izabela

Klosinska의 소녀와

도 같은 신선한 음성은

그레첸 역할에 적격이

며, 다른 여기수들 모두 뛰어나

다. 테너 Timonthy Bentch는 동

정녀를 찬양하는 부분의 중요한

솔로를 다른 경쟁한 경쟁자들에

뒤지지 않게 훌륭히 해결하였다.

그가 밝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영

웅적으로 노래한 'Blicket auf'는

빼어나다. Wojtek Drabowicz보

다 남성적인 범열의 신부나 Piotr

Nowacki보다 당당한 고뇌의 신

부를 만나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영예의 가장 큰 몫은 비트의 차지다. 자칫 혼란해지기 쉬운 레코딩 작업에서 그는 자신의 100퍼센트를 분출하였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장대하다. 다른 음반들에서 좀처럼 듣기 힘들었던 브라스 색션의 디테일을 들을 수 있으며, 현의 아티큘레이션은 이 음반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테너가 'Blicket auf' 에피소드 중의 'Mutter Koenigin' 부분을 노래할 때의 풍성한 포르타멘토는 나가노의 연주에서처럼 소노리티를 위한 탁월한 감각을 보여준다.) 완만한 템포는 매우 예외적이다. 비트는 1악장에 대한 이상적인 알레그로 템포를 발견하였고, 이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다. 그는 클라이맥스를 향한 이중푸가를 전율적으로 몰고 가며, 중요한 순간들에서도 결코 긴장도를 늦추지 않았다. 1악장의 'Infirma nostri corporis'를 체크해보면 다른 연주들에서 놓치곤 했던 맥동을 그가 어떤 식으로 유지해 나가는가를

확인하게 된다. 비트의 감각에 대한 이러한 예는 작품 도처에 널려있다. 중반부 푸가에서 합창단이 'Accende lumen sensibus'를 다시 노래할 때 템포 프리모로 되돌아오는 그의 전율적인 리드를 눈여겨보라. 강력한 연출이다. 2악장의 프렐류드는 현으로부터의 감동적인 프레이징과 함께 멋진 운치를 보여준다. 이후 고뇌의 신부의 솔로 이후 여성합창의 스케르찬도 삽입부에서 비트는 거대하면서도 적절한 아첼레란도를 만들어내면서 음악의 흐름에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는다. 여가수들의 세 번의 독창과 삼중창은 Marta Boberska가 완벽하게 노래한 영광의 성모의 강렬한 등장으로 산뜻하게 이어진다. 마지막 어린이

합창 직전의 만들어진 파트나 악장 후

반부를 양념하는 첼레스타와 하프

의 울림과 같은 기악의 디테일들이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며 작품

속에 말러가 의도했던 미광을 부여

한다. 신비의 합창으로 이어지는 반

짝이는 솔로 피콜로 파트를 비트가

어떤 식으로 작품 전체와 일체화시

키는가를 확인해보라. 많은 경우 독

립적인 에피소드로 지나가버리고

마는 이 부분이 합창의 첫 음표로 자

연스럽게 이어지며 단일한 선율의

아치를 만들어낸다. 오늘날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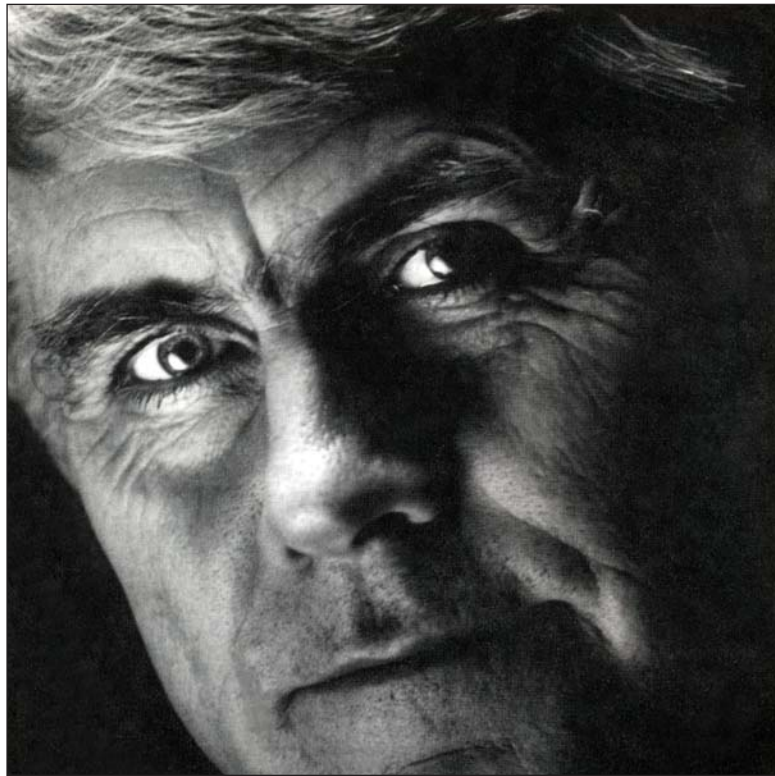
취향을 위한 말러 8번들이 존재한다.

두 악장 모두에서 놀라운 코다를 만들어낸 베르티니의 날씬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연주. 나가노의 관능적이며 심지어 퇴폐적이기까지 한 연주. 또한 번스타인(Sony), 텐슈테트(EMI), 시노폴리(DG), 솔티(텍카)와 같은 우수한 이전 연주들과 더불어 기술적으로 흠잡을 곳 없는 쿠벨릭의 라이브 버전(Audite) 등이 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모든 경쟁 버전들의 장점들을 결합한 연주를 원한다면 이 신보를 들어보길 바란다. 경제성은 보너스다. 비범하면서도 매우 기쁜 놀라움!

- David Hurwitz from Classicstoday 2006/04/11

노르웨이 포크뮤직의 아버지

손드레 브라들란 Sondre Bratland



음악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의 여러 가지 음악들에 컨트리 뮤직에 관한 요소가 많음은 이상할 것이 없고, 그의 음악의 많은 대목들에서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브라들란의 대표적인 음반으로 앞서 언급한 최근 컨트리 뮤직 음반인 '고향 노래를 불러주오'가 근자에 출시되어 높은 인기를 끌었던 것을 먼저 기억한다. '고향 노래를 불러주오'라는 타이틀곡 외에 유명하고 아름다운 '그대의 손을 내게 주오'란 아일랜드 민요를 하나 더 수록하고 있고, 유명함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강은 넓고'를 포함해 미국 민요들도 여러 편 수록되어 있다. 끝으로 노르웨이 민요 선율로 만든 '저녁 기도'는 고요한 도입부

손드레 브라들란은 클럽이나 선술집, 교회, 그리고 많은 포크 뮤직 페스티벌에서 노래해온 노르웨이의 가장 사랑 받는 포크 송 가수 중의 한 사람이다. 특기할 것은, 최근 많은 사랑을 받은 '고향 노래를 불러주오'라는 제목의 앨범에서 느낄 수 있듯이, 브라들란이 미국 컨트리 뮤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라디오로 미국 컨트리 음악을 밤늦게까지 듣는 등 오랜 세월동안 그 음악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키워왔다. 아마 컨트리 뮤직은 그의 본성에 매우 잘 맞는 음악이었었던 것 같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런 종류의 음악을 간직하고 싶었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거기에는 내 감정에 호소하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다." 물론 컨트리 뮤직에 대한 그의 특별한 기호는 그가 만드는 스칸디나비아

터 아주 인상적이다. 가난한 방랑자가 아버지를 찾으러 간다는 내용인데 아련한 여운을 남긴다. 모두 편안하고 아름다운 감성의 노래라서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음반이다. 또 다른 그의 유명한 앨범 중에 '순례자의 노래책'은 1983년에 노르웨이 그래미를 수상했었다(지금까지 낸 음반 중 절반은 그래미 후보작으로 선정되었다). 그리스도의 탄생(Rosa fra Betlehem), 부활의 신비(Mysteriet), 비종교적인 노래(Atterklang) 등 그가 부르는 노래의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손드레 브라들란의 발매 음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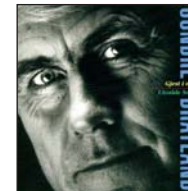
강력 추천



FXCD 289

SONDRE BRATLAND : SYNG MEG HEIM

손드레 브라들란이 불러주는 컨트리 뮤직 노르웨이의 가수 손드레 브라들란이 새로 내놓은 컨트리 뮤직(민요) 음반이다. '고향 노래를 불러주오'는 타이틀곡 외에 유명하고 아름다운 '그대의 손을 내게 주오'라는 아일랜드 민요를 하나 더 수록하고 있고, 유명함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강은 넓고'를 포함해 미국 민요들도 여러 편 수록되어 있다. 끝으로 노르웨이 민요 선율로 만든 '저녁 기도'는 고요한 도입부에서 아주 인상적이다. 가난한 방랑자가 아버지를 찾으러 간다는 내용인데 아련한 여운을 남긴다. 모두 편안하고 아름다운 감성의 노래라서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다.



FXCD 135

SONDRE BRATLAND : Gjest i verda



FXCD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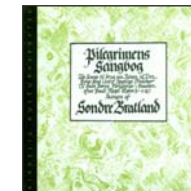
SONDRE BRATLAND : Den Blå Gleda



FXCD 250

SONDRE BRATLAND : DRAUMKVEDET

Draumkvedet은 "The Dream Ballad"를 뜻한다. "올라브"라는 사람이 크리스마스에 꾸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노르웨이에서 전례되어 오는 노래들을 손드레 브라들란이 다시 재해석하여 수록한 앨범. 노르웨이의 민속음악으로 국가적인 문화의 보고라고 한다.



FXCD 32

SONDRE BRATLAND : PILEGRIMENS SANGBOG

가장 노르웨이적인 민속음악이 담긴 음반! 노르웨이의 민속음악을 발견하여 재해석하여 음반을 발매하는 손드레 브라들란의 2002년도 최신작. 이 앨범에서도 그는 노르웨이의 서정적인 민속음악을 담아 두었다.

Discography

- Pilegrimens sangbog (Kirkelig Kulturverksted (MC) FXMC 32, 1982)
- Den bla gleda (Kirkelig Kulturverksted (MC) FXCD 43, 1983)
- Kjeldevatn (Kirkelig Kulturverksted FXCD 58, 1985)
- Inn i draumen (Kirkelig Kulturverksted FXCD 76, 1988)
- I trumal (Buen Kulturverkstad (MC) BKMC 33, 1990)
- Mysteriet (Kirkelig Kulturverksted FXCD 95, 1990)
- Rosa fra Betlehem (Kirkelig Kulturverksted FXCD 121, 1992)
- Fjellmannntonar, with various artists (Grappa Musikkforlag HCD 7083, 1993)
- Gjest i verda (Kirkelig Kulturverksted FXCD 135, 1994)
- Dam, with Oslo Chamber Choir (Kirkelig Kulturverksted FXCD 147, 1995)
- Hank Williams pa norsk (Kirkelig Kulturverksted FXCD 158, 1995)
- Atterklang (Kirkelig Kulturverksted FXCD 174, 1996)
- Kvilestein (Kirkelig Kulturverksted FXCD 212, 1999)

BBC

Opus Arte

BBC / Opus Arte DVD

CURSIVE II

BBC/Opus Arte
OA 0952D

행초(行草) II

한자의 행서체와 초서체를 춤으로 표현한 혁신적 작품

대만의 안무가 린 화이민은 현재 피나 바우쉬, 한스반 마넨, 지리 킬리안과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아시아 최고의 안무가이자 천재로 알려져 있다. 발레, 모던 댄스, 중국 전통 오페라, 태극권, 명상 등 다양한 훈련으로 무장한 그의 '클라우드 게이트 댄스 컴퍼니' 또한 다른 발레단이 흉내 낼 수 없는 독창적인 움직임과 단원들의 비상한 지적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클라우드 게이트 댄스 컴퍼니는 2003년 내한하여 한자(漢字)를 태극권의 움직임으로 포착한 <행초(行草)>로 격찬을 받은 바 있다. 이 <행초>는 총 3부작으로 구성되었고 본 영상물은 그 두 번째 작품이다. '행초'라 함은 한자에서 가장 어려운 행서(行書)와 초서(草書)를 가리킨다. 린 화이민은 중국 전통 서예의 한자에 내재된 엄청난 에너지를 주목하고 이것이 인간 신체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걸 춤으로 구현한 지극히 독창적인 작품이 <행초> 시리즈인 것이다. 2005년 가을 제네바 공연 실황이다.

[보조자료]

○ 린 화이민은 대만 출신으로 뉴욕에 유학하여 영문학을 공부하다가 그곳 현대무용의 흐름에 매료되어 1973년 클라우드 게이트 댄스 컴퍼니를 창설했다. 클라우드 게이트(雲門)란 5000년 전부터 중국에 알려진 중국에 알려진 고대 의식용 춤을 뜻하며, 이 무용단은 동양 사상의 관점에 따라 마음을 먼저 훈련시키고 신체의 기술을 습득한다는 원칙으로 발레, 현대 무용의 테크닉과 더불어 명상, 태극권을 중요 훈련과정으로 다룬다.

○ 린 화이민은 지적 능력이 매우 출중한 사람이다. 문학도답게 베스트셀러 소설도 2권이나 있으며 중국 춤에 집착하지 않고 서구 무용의 흐름과 아시아 각국의? 전통 춤에 깊은 소양을 갖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게이트를 창단할 무렵 한국을 방문하여 한영숙과 김천홍의 춤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얻었다고 한다.

○ 린 화이민은 현재 세계 무용계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안무가로 공인받고 있다. 1983년 제이씨 인터내셔널로부터 '세계의 훌륭한 젊은이 10인'에 선정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유럽의 각종 댄스 전문지와 페스티벌에서 격찬을 받았다. 드디어 2000년 발레 인터내셔널 잡지는 그를 머스 커닝햄, 지리킬리안, 피나 바우쉬, 윌리엄 포사이드 등 현존하는 최고의 안무가들과 함께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아시아의 노벨상이라는 막사아시아상도 수상했다.

○ 그의 대표작은 <방랑자의 노래(1994)>, <수월(水月, 1998)>, <뱀부 드림(2001)>, 그리고 3부작으로 구성된 <행초(行草)>이다. 이중 <방랑자의 노래>, <수월>, <뱀부 드림>에 이어 <행초 II>마저 DVD로 발매됨으로써 일반 애호가층도 린 화이민에게 주목할 계기가 마련되었다.

3DVD

BBC/Opus Arte
OA 0950D

헨델 : 줄리오 체사레

사라 콘놀리(체사레) / 앙겔리카 키르호슬라거(세스토) / 다니엘 데 니스(클레오파트라) / 파트리샤 바르동(코르넬리아) / 크리스토퍼 몰트만(아킬라) / 크리스토프 뉘모(톨로메오) / 윌리엄 크리스티(지휘) / 계몽시대 오케스트라 / 데이비드 맥비카(연출) / 로버트 존스(미술)

크리스티의 손끝에서 재현된 헨델의 걸작 오페라

1724년에 초연된 헨델의 장편 오페라 <줄리오 체사레>는 작곡가가 남긴 수많은 이탈리아 오페라들 중에서도 가장 성공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줄리오 체사레(율리우스 세사르)와 클레오파트라의 로맨스, 클레오파트라와 톨로메오 남매의 암투, 톨로메오에게 살해된 폼페이(폼페이우스)의 아내와 아들인 코르넬리아와 세스토의 복수 등이 어우러지면서 이 장대한 오페라의 스토리를 만들어나간다. 4시간이 넘는 공연시간을 자랑하는 작품인 만큼 일부를 생략한 축약본 형태로 공연이 주로 이루어지는 편이나 본 영상물이 담고 있는 2005년 8월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실황은 작품 전체를 온전히 무대에 올렸다. 세사르를 19세기말 빅토리아 왕조시대의 정복자로 재해석한 데이비드 맥비카의 창조적인 연출은 별다른 지루함 없이 이 기나긴 작품을 단번에 감상할 수 있을 정도로 흥미진진하다. 일급 성악진들의 열창과 열연이 눈부시며, 특히 클레오파트라를 맡은 데 니스의 매력적인 용모와 관능적인 연기가 특기할 만하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 최고의 바로크 오페라 스페셜리스트인 윌리엄 크리스티의 지휘는 이 영상물의 음악적인 충실함을 보장한다. 프로덕션 포토 갤러리, 리허설 포토 갤러리, 캐스트 갤러리, 일러스트레이티드 시놉시스, 데 니스의 글라인드본 생활상을 재미있게 다룬 22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헨델 오페라 재해석에 관한 프로덕션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담은 5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가 부록으로 제공된다.

3DVD

BBC/Opus Arte
OA 0947D

바그너 : 발퀴레

온 브뤼헐레르(보탄) / 존 키예스(지그문트) / 진닌 알트메이어(브륄힐데) / 나딘 세쿰데(지글린데) / 쿠르트 라이들(훈딩) / 라인힐트 룬펠(프리카) / 하르트무트 헨헨(지휘) / 네덜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피에르 오디(연출) / 조지 티시핀(미술) / 에이코 이시오카(의상)

반지 공연사의 굵직한 일획을 그었던 피에르 오디의 네덜란드 오페라 프로덕션 <발퀴레>는 바그너가 창조한 방대한 규모의 악극 4부작 <니벨룽의 반지>의 두 번째 날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신계와 인간계사이를 넘나들며 벌어지는 사랑과 권력 사이의 양립할 수 없는 분쟁사를 완성도 높은 음악의 틀 안에 담아놓았다. 유럽 오페라계의 일급 연출가인 피에르 오디가 연출한 네덜란드 오페라의 1999년 프로덕션을 수록한 본 영상물은 오케스트라 주위를 반지 형태로 둘러싼 독특한 형태의 무대 위에서 조지 티시핀의 환상적인 무대미술과 아카데미 의상상에 빛나는 일본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에이코 이시오카의 감각적인 의상이 어우러지면서 보는 이들을 초현실적인 가상세계 속으로 인도한다. 현존 최고의 바그너 소프라노들인 진닌 알트메이어와 나딘 세쿰데가 브륄힐데와 지글린데를 나누어 맡았고, 신에 헬텐 테너 존 키예스가 지그문트를, 관록파 베이스 쿠르트 라이들이 훈딩을 열연하였다.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바리톤 온 브뤼헐레르의 보탄은 <라인의 황금>에서와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산한다. 캐스트 갤러리, 일러스트레이티드 시놉시스, 그리고 20분 분량의 <발퀴레> 해설 인터뷰가 부록으로 제공된다.

BBC

Opus Arte

BBC / Opus Arte DVD

Opus Arte 의 중가 DVD 시리즈 Faveo

구미의 최신 공연실황을 하이퀄리티의 DVD로 선보여온 오퍼스 아르테에서 과거 LD나 TV 소스를 DVD로 옮긴 중간 시리즈 파베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4편은 모두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공연을 옮긴 것으로 그동안 유럽 문화신진국들에 뒤지지 않는 이 나라의 풍성한 음악적 잠재력을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Faveo

BBC/Opus Arte
OAF4005D

글룩 : 오페라 <오르페와 유리디체>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재에 입각한 최고의 걸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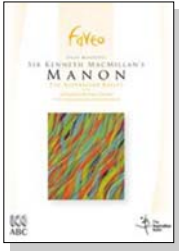
오페라가 탄생한 이래 바로크 오페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소재는 뱀에 물려 죽은 아내를 잊지 못해 영계(靈界)를 찾아온 오르페오의 이야기였다. 이중 1762년 빈에서 초연된 글룩의 오페라는 지나친 가수 중심의 기교주의를 반대하고 그리스 비극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오페라 개혁의 취지를 담은 역사적 명작이다. 글룩은 파리 청중을 위한 볼어판도 만들었는데 1993년 시드니 오페라 실황을 담은 이 영상물은 볼어판을 채택했다. 오케스트라 석까지 활용한 독특하고 아름다운 무대, 합창단은 물론 메릴 탱커드 무용단까지 극에 완벽하게 녹아들어난 화제작이다. 특히 오르페를 부르는 데이비드 흄슨의 기량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르페 역은 통상 카운테테너나 남장(男裝)한 콘트라alto가 부르지만 흄슨은 테너이면서도 카운테테너를 연상시키는 발성법과 놀라운 콘트롤 능력으로 지극히 높은 음역대에서 놀랍도록 아름답게 노래한다.

[보조자료]

○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룩(1714~87)은 오페라 개혁을 추구한 작곡가로 유명하다. 빈에서 활동하면서 나폴리 스타일 오페라의 폐해를 목도하고, 그리스 비극을 재현하자는 오페라 초창기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상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그 대표작이 <오르페오와 유리디체>, <알체스테>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이상은 빈에서 큰 호응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모차르트조차 외면했다. 이 때문에 글룩은 파리로 근거지를 옮겨 프랑스풍의 오페라에 매진하게 된다. <아울리스의 이피게니아>, <타우리스의 이피게니아>가 파리 시대의 대표작이고 <오르페와 유리디체>라는 프랑스 스타일의 개정판을 만들었다.

○ 오페라 개혁을 주도했던 작품답게 요즘도 이 작품에는 다양한 실험적인 연출이 시도되고 있다. 로버트 윌슨은 고대 그리스 비극 스타일로 구성했으며, 하리 쿠퍼는 주인공 오르페오를 록가수로 설정하는 등 오페라 시작부터 클래식 애호가들의 불편한 심기를 일부러 자극한다. 본 영상물에서는 페터 버틀러가 고전적 이미지와 현대적 감각이 공존하는 인상적인 무대를 연출했다.

○ 데이비드 흄슨은 호주 최고의 테너이며 특화된 고음 구사 능력과 세련된 미성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바즈 루어만이 연출한 <라 보엠>의 호주 오페라 실황 DVD에서도 독특한 로돌포 역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BBC/Opus Arte
OAF4006D

마스네 : 발레 <마농>

본고장 로열 발레 실황보다 더 극적인 감동을 선사하는 최고의 <마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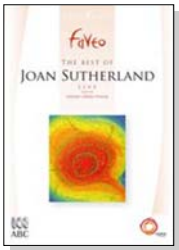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드라마 발레 안무가의 한 사람인 케네스 맥밀란 경은 1974년 아베 프레보의 소설 “기사 데 그리외와 마농 레스코 이야기(1731)”를 바탕으로 <마농>을 안무한다. 특이한 것은 마스네가 작곡한 동명의 오페라에서는 한 소절도 나오지 않고 마스네의 다른 작품만으로 음악을 구성했다는 점. 지금은 영국을 대표하는 드라마 발레로서 2005년 로열 발레 내한 당시에도 공연되었다. 주인공 마농은 모든 남성의 빛을 나가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세속적인 욕심이 많고 속은 얇은 여인이다. 이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는 가난한 학생 데그류를 비참하게 만들고 오빠인 레스코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결국 미국에 유배되어 늙지로 도망쳤다가 데그류의 품에 안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본 영상물은 1995년 오스트레일리아 발레단 실황이며 이 발레단의 최고 스타인 저스틴 섬머즈(마농)와 스티븐 히스코트(데그류)가 공연한다. 극적인 감동면에서 로열 오페라를 능가한다는 극찬을 듣는 빼어난 실황이다.

[보조자료]

○ 케네스 맥밀란(1929~1992)은 1954년 새들러스 웰즈 씨어터 발레단(현재의 로열 발레)에 무용수로 데뷔했다. 안무가로는 독일 오페라 발레(1966~69), 로열 발레(1970~77)의 예술감독을 지냈으나 안무에 전념하기 위해 행정직위를 받았다. 한때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에서 일한 바도 있지만 평생의 기반은 로열 발레였다. 그는 존 크랑코와 더불어 전막 드라마 발레를 유행시킨 최대 공로자이며, 역사적 소재, 연극적 줄거리, 강렬한 성적 표현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작은 <초대>, <로미오와 줄리엣>, <대지의 노래>, <아나스타사>, <마농>, <마이얼링>, <탐의 왕자>, <겨울의 꿈> 등이다.

○ <마농>은 두 주인공이 춤추는 이인무의 향연이며 1막, 2막, 3막에 각각 이인무가 주어 있다. 조역인 레스코와 그의 애인이 춤추는 소위 '만취(滿醉) 파드되'도 유명하다. 한편 마농보다는 그녀를 사랑하는 데그류의 관점에서 극이 전개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따라서 독무는 데그류의 것 중에 감동적인 장면이 많다.

○ 이 발레의 고전적 영상물은 제니퍼 페니(마농)와 앤소니 도웰(데그류)가 공연한 1982년 로열 발레 실황이다. 그러나 이 오스트레일리아 실황은 화질과 음질은 물론 두 주인공의 캐릭터를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평 있다.



BBC/Opus Arte
OAF4007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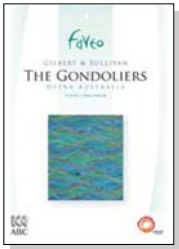
조운 서덜랜드 베스트

연주: 엘리자베스 시드니 오케스트라 / 엘리자베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리처드 보닌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위대한 소프라노

20세기를 풍미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 조운 서덜랜드가 1970년대와 1980년에 남긴 오페라의 명장면들을 모은 DVD. 주지하듯이 서덜랜드는 오스트레일리아가 낳은 국보급 가수다. 그녀가 자국의 세계적인 명물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펼친 공연 장면들은 그 사료적인 가치로도 아주 특별하다. 그녀의 남편인 리처드 보닌지가 특별히 엘리자베스 시드니 오케스트라와 엘리자베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도니체티의 루크레치아 보르지아를 위시해, 벨리니, 박쥐, 라크메, 메리 위도우, 루치아 등의 명장면 명곡들이 감동적으로 흐른다. 1시간 30분가량 세계 최고의 오페라 가수의 노래와 함께 일대 호화로운 장면을 만끽할 수 있다.



BBC/Opus Arte
OAF4008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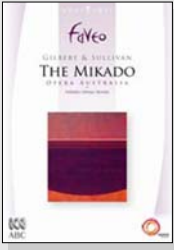
길버트 & 설리반 : 곤돌리어스

흥겨운 춤과 노래로 풀어나가는 잃어버린 왕자 찾기

대본작가 길버트와 작곡가 설리반의 협동작업을 통해 완성되었던 일련의 오페레타들은 19세기말 영국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었다. 혹자들은 풍성한 볼거리를 갖춘 길버트와 설리번의 흥겨운 오페레타들을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원뿌리로 보기도 한다. <곤돌리어>(곤돌라사공)는 <미카도>와 더불어 길버트&설리반 콤비가 낳은 최고의 성공작이라 말할 수 있다. 아름다운 노래와 흥겨운 춤곡들로 가득한 이 오페레타는 18세기 중반 베니스를 배경으로 한다. 플라자-토로 공작부부는 어려서 베니스로 빼돌려진 가공의 나라 '바라타리아'의 왕위계승자를 찾기 위해 이 도시를 방문한다. 가장 유력한 후보자는 잘 생긴 두 명의 곤돌라사공들. 그러나 방금 결혼한 이 두 청년은 왕관과 아리따운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복잡하게 상황은 얽혀가지만 마지막 황당한 반전 한번으로 모든 것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1988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의 실황을 담은 본 영상물은 화려한 무대와 의상, 흥겨운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사보이 오페레타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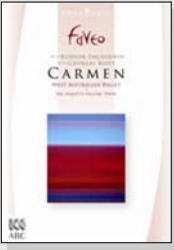
기존 출시된 Faveo 시리즈

BBC/Opus Arte
OAF4001D



길버트 & 설리반 :
미카도

BBC/Opus Arte
OAF4002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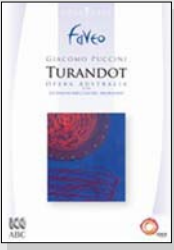
쉐드린-비제 :
발레 <카르멘>

BBC/Opus Arte
OAF4003D



칠레아 :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BBC/Opus Arte
OAF4004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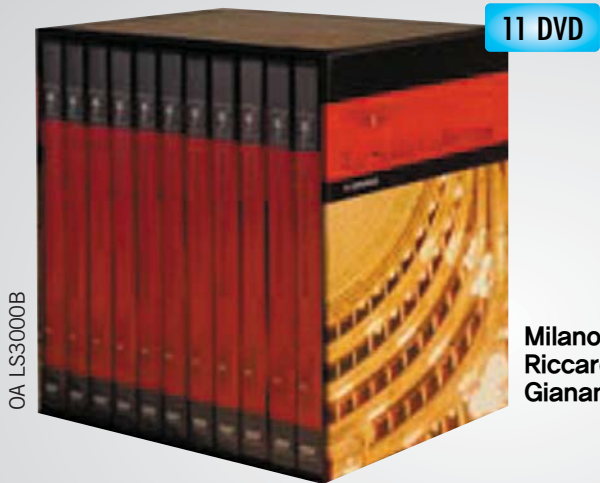


푸치니 :
투란도트

BBC

opus ARTE

The La Scala Collection Box Set



Milano La Scala Opera
Riccardo Muti, Lorin Naazel,
Gianandrea Gavzzeni, Stefano Ranzani

수록 작품들

칠레아 : 아드리아나 르쿠브뢰 / 도니체티 :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 모차르트 : 코지 판 투테 / 모차르트 : 돈 조반니 페르골레지 : 사랑에 빠진 오빠 / 푸치니 : 서부의 아가씨 / 로시니 : 구글리엘모 텔(빌헬름 텔) / 로시니 : 호수의 여인 베르디 : 아틸라 / 베르디 : 포스카리가(家)의 두 사람 / 베르디 : 시칠리아의 저녁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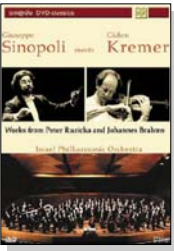


Cascade DVD

❖ 구석 레퍼토리 찾아들은 즐거움...독일의 캐스케이드 DVD ❖

독일 남부에서 약 20년 전에 창립된 **캐스케이드(Cascade)**는 처음에는 주로 클래식과 재즈 음반을 내기 위한 사업체로 출발했다. 이 회사는 실제로 적지 않은 음반을 가지고 있다. DVD시대에 돌입해서는 음악 DVD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일에도 적극 힘써왔다. 오페라나 오페레타, 발레 등 극장예술, 콘서트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재즈, 코미디, 다큐멘터리, 그리고 기타 휴식을 취하기 좋은 영상 아이템들을 소개했는데, 캐스케이드는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한 아이템을 하나하나 출시하면서 점차 애호층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이 회사에서 내놓은 DVD는 아직까지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렴한 가격의 이점에 흔히 볼 수 없는 명지휘자, 연주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구석 아이템들이 준비해 충분히 구미를 당긴다.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 & 런던 필의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찰스 매킨러스 & 프라하 국립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의 <돈 조반니>는 단번에 호기심이 발동하고, 리처드 히콕스가 지휘하는 헨델의 <줄리오 체사레>나 테오도르 구슬바우어가 지휘하는 모차르트의 <폰토의 왕 미트리다테>등 출시예정에 있는 몇몇 타이틀도 기다려진다. 콘서트 프로그램에서는 길 사함이 하이든,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 것도 있고, 피아니스트 레온스카야의 연주로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도 감상할 수 있다. 볼프강 자발리슈가 이스라엘 필을 지휘하여 드보르자크의 슬라브무곡,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모음곡을 연주한 DVD는 이색적이다 싶을 정도로 참신하게 느껴진다. 프리드리히 굴다가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며 연주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26번 '대관식' (굴다의 모차르트 영상물은 곧 박스세트로도 나올 예정이다), 몇 해 전 아까운 나이로 타계한 거장 주제페 시노폴리가 브람스의 교향곡 2번을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연주한 것은 기돈 크레머가 참가한 브람스의 이중 협주곡과 한 짝이다. 곧 출시될 예정인 윌리엄 크리스티의 프랑스 바로크 음악 영상물에는 특별한 기대감에 부풀게 한다. 캐스케이드 DVD에서 특기할 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작곡가 영상 바이오그래피가 보너스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각 영상물마다 특별 트랙에 해당 음반 작곡가의 삶과 예술을 짚막하게 조명한 미니 다큐멘터리를 실고 있는데, 30여분 정도로 짧지도 길지도 않은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진자료를 써서 대단히 충실하게 만든 것이다.



Cascade 60039

루치카 : 탈리스
브람스 : 이중협주곡, 교향곡 2번
기돈 크레머(바이올린) / 마르타 수드라바(첼로) / 주제페 시노폴리(지휘) /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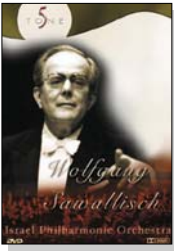
거장 시노폴리가 남긴 마지막 콘서트 영상물
2001년 4월 20일 베를린 도이체 오퍼에서 아이다를 지휘하던 도중 심장마비로 54세의 길지 않은 생애를 마감했던 주제페 시노폴리. 정신과의사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에 걸맞은 분석적이고도 냉철한 작품해석으로 국내 애호가들 사이에게도 많은 추종자를 낳았던 그는 또한 첼리스트 장한나의 든든한 후원자로도 친숙했던 이름이었다.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한 본 실황은 영상으로 남겨진 그의 마지막 콘서트다. 콘서트 레퍼토리는 독일의 현대작곡가인 페터 루치카의 관현악곡 '탈리스', 그리고 브람스의 이중협주곡과 교향곡 2번으로 꾸며졌다. 브람스의 이중협주곡에는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아티스트가 참여하였다. 바로 논란의 여지없는 현존 최고의 바이올린 비르투오조인 기돈 크레머. 그리고 첼로솔로는 크레머의 악단인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첼로 수석인 마르타 수드라바가 맡았다. 35분 분량의 브람스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부가영상으로 제공되며, 2.0채널 스테레오와 5.1채널 돌비 서라운드를 함께 지원한다.



Cascade 90003

베토벤 : 피아노협주곡 4번 / 슈베르트 : 로자문데 서곡
JS 바흐 : 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 스트라빈스키 : 폴치넬라
미츠코 우치다(피아노) / 지노비 카플란(바이올린) / 두두 카르멜(오보에) / 주빈 메타(지휘) /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주빈 메타와 미츠코 우치다의 특별한 만남
1968년 음악고문의 자격으로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첫 인연을 맺었던 주빈 메타. 1977년 음악 감독에 취임하면서 더욱 돈독해진 이들의 호흡은 1981년 종신 음악 감독의 영예를 부여함으로써 불가분의 확고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2002년 3월 26일 텔아비브에서의 실황을 담은 본 영상물을 통해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유지되어온 이들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확인하게 된다. 본 콘서트를 주목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피아니스트 미츠코 우치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등에서 독보적인 경지에 오른 그의 영롱한 피아니즘을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4번을 통해 만나본다. 이스라엘 필의 수석들이 솔로를 나누어 맡은 JS 바흐의 오보에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슈베르트의 로자문데 서곡, 그리고 스트라빈스키의 신고전주의 시절을 대표하는 작품인 '폴치넬라' 모음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35분 분량의 바흐 다큐멘터리가 부가영상으로 제공되며, 2.0채널 스테레오와 5.1채널 돌비 서라운드를 함께 지원한다.



Cascade 90004

드보르작 : 슬라브 춤곡 1-8번
차이코프스키 : <백조의 호수> 하이라이트
볼프강 자발리시(지휘) /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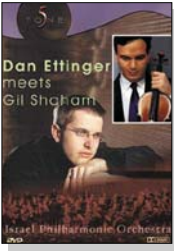
자발리시가 지휘하는 드보르작과 차이코프스키
정통 독일거장들의 계보를 지금까지 묵묵히 이어가고 있는 볼프강 자발리시. 1923년 독일 뮌헨에서 태어난 그는 1947년 아육스부르크 오페라극장의 연습코치로 처음 음악계에 발을 들인 이후 함부르크 국립오페라, 빈 심포니,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국립오페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등의 요직을 두루 섭렵하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지휘자의 한 사람으로 음악계의 존경을 받고 있으며, 많은 추억의 대지휘자들이 세상을 떠난 지금 거장들의 황금기에 대한 추억을 전해줄 수 있는 몇 남지 않은 이름의 하나이다. 본 영상물은 2001년 3월 텔아비브에서의 콘서트를 수록한 것으로 드보르작의 슬라브 춤곡 중에서 전반부 8곡을 수록하였고, 차이코프스키의 걸작 발레 '백조의 호수' 중에서 하이라이트들을 발췌하였다. 차이코프스키에 관한 35분 분량의 음악 다큐멘터리가 보너스로 제공되며, 2.0채널 스테레오와 5.1채널 돌비 서라운드를 지원한다.



Cascade 90006

글링카 :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브람스 : 피아노협주곡 2번 / 슈만 : 교향곡 1번 <봄>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피아노) / 파보 예르비(지휘) /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파보 예르비와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의 브람스 협주곡
대지휘자 네메 예르비의 아들로서 부전자전의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 젊은 거장 파보 예르비. 로얄 스톡홀름 필하모닉과 버밍엄 심포니의 수석객원지휘자를 거쳐서 현재 에스토니아 국립교향악단의 음악고문, 브레멘 도이치 캄머필하모니의 예술감독, 신시내티 심포니의 음악 감독을 겸임 중이며, 2006년 시즌부터는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의 새로운 음악 감독에 취임하게 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 중이다. 2001년 1월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필하모닉을 지휘한 이 영상물에는 파보 예르비의 탄력 넘치는 지휘와 더불어 러시아 출신의 여류 피아니스트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의 우아한 피아니즘이 함께 담겨있다. 톤티보 쿵쿠르와 퀴엘리자베스 쿵쿠르를 석권하면서 구소련을 대표하는 여류 피아니스트로 각광받았던 레온스카야는 리히터의 피아노 이중주 파트너로도 낮은 이름이다. 두 연주자의 자연스러운 파트너십이 인상적인 브람스 피아노협주곡 2번이 이 영상물의 백미이며, 글링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슈만의 교향곡 1번 '봄'이 함께 수록되었다.



Cascade 90007

하이든 : 바이올린협주곡 (바이올린교습 필수곡)
브루흐 : 바이올린협주곡 1번 / 베토벤 : 교향곡 3번 <영웅>
길 사함(바이올린) / 댄 에팅거(지휘) /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젊은 피들의 경연
2002년 4월 텔아비브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필하모닉의 콘서트를 수록한 본 영상물에는 1971년생 동갑내기 지휘자와 바이올리니스트가 뽑어내는 젊은 기백과 뜨거운 열정이 가득 담겨있다. 벤게로프와 인기를 양분하고 있는 젊은 비르투오조 길 사함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댄 에팅거라는 낯선 이름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2002년 예루살렘 심포니의 수석객원으로 취임하면서 이스라엘 음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젊은 지휘자는 처음 바리톤 기대주로 음악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메타, 바렌보임, 시노폴리 등의 든든한 후원아래 베를린 슈타츠오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이스라엘 필 등을 자주 지휘하면서 점차 국제적인 명성을 얻어가는 중이다. 작곡가 특유의 유쾌 발랄함이 매력적인 파파 하이든의 바이올린협주곡, 로맨틱 바이올린협주곡의 대명사인 브루흐의 바이올린협주곡 1번, 그리고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이 가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한다.



TDK DVWW-CONYC6V

2006년 베니스 라 페니체 오페라 극장 신년음악회

- *베르디 : 운명의 힘 : 서곡
- *베르디 : 십자군의 롬바르디인 : 십자군과 순례자의 합창
“내 기쁨으로 그대를 감싸리”
- *토스카 :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 *모차르트 : 피가로의 결혼 “서곡”
- *모차르트 : 돈 조반니 “우리 손을 잡고”
- *도니제티 : 돈 파스칼레 “신포니아”
- *도니제티 : 사랑의 묘약 “남 몰래 흐르는 눈물”
- *베르디 : 나부코 :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 *베르디 : 라 트라비아타 : 축배의 노래

피오렌차 체들린스(소프라노)
조셉 칼레야(테너)
로베르토 스칸디우치(베이스)
로베르토 볼레, 엘레노라 아바나토(발레)
쿠르트 마주어(지휘) / 베니스 라 페니체 극장 관현악단과 합창단

거장 쿠르트 마주어와 유럽 오페라계의 세 젊은 기대주가 펼쳐는 화려한 무대
2003년 12월 베니스의 페니체 오페라극장은 불사조라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잿더미 위에서 다시금 부활하였다. 재개관 이후 매년 초하루 이 화려한 극장에서 펼쳐지는 신년음악회는 빈 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클래식 음악계의 성대한 음악축제의 한 마당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본 영상물은 2006년의 신년음악회를 수록한 것이다. 빈 필의 신년 음악회가 그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왈츠들로 장식되는 것처럼, 페니체 극장의 신년음악회는 이탈리아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국의 오페라들이 중심이 된다. 본 공연에서는 베르디, 푸치니, 그리고 도니제티의 유명 아리아 및 합창곡들과 더불어, 올해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모차르트의 오페라 단편들을 무대에 올렸다. 다시금 건강을 회복한 거장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봉을 잡았고, 1996년 파바로티 콩쿠르 우승자인 소프라노 피오렌차 체들린스, 실력과 바리톤 로베르토 스칸디우치, 그리고 유럽 오페라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폴라 출신의 신예테너 조셉 칼레야가 참여하였다.



TDK DVW-CORLF

2003년 베니스 라 페니체 오페라 극장 재개관 기념 음악회

- *베토벤 : 현당식 서곡 Op.124
- *스트라빈스키 : 시편 교향곡
- *칼라타 : 테 데움
- *바그너 : 황제 행진곡, 중성 행진곡

파트리차 치오피, 사라 알레그레타(소프라노)
소냐 가나시, 사라 밍 가르도(메조 소프라노)
로베르토 사카, 미르코 과다냐니(테너)
미켈레 페르투시, 니콜라스 리벵(베이스)
리카르도 무티(지휘) / 베니스 라 페니체 극장 관현악단과 합창단

朝鮮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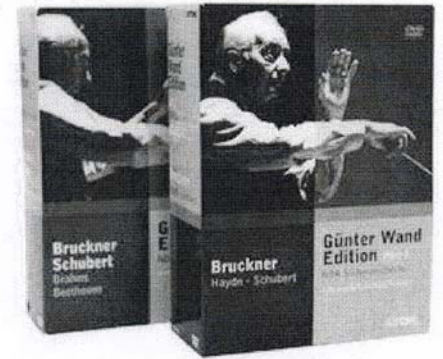
2006년 4월 19일 수요일

... TDK 권터반트 박스 세트 ...

죽을 때까지 브루크너와 싸우다

>> DVD 리뷰/권터 반트 에디션 1·2

이 영상물은 죽음과 예술의 함수 관계에 대한 진지한 보고서다. 독일의 명(名) 지휘자 권터 반트(1912~2002). 카라얀만큼 드넓은 레퍼토리를 자랑하진 않았지만, 브루크너와 슈베르트 등 독일계 교향악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不許)하는 전문가였다. 일흔에 접어든 1980년대부터야 국제적 명성을 얻은 ‘대기만성(大器晩成)’의 전형이기도 하다.



죽음을 10여년 앞둔 1990년대. 반트는 북(北) 독일방송교향악단을 이끌고 솔레시비히·홀슈타인 음악제에서 매년 브루크너의 교향곡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당시 실황을 담은 영상이 최근 ‘권터 반트 에디션’이라는 DVD 묶음(TDK)으로 출시됐다.

나이 일흔 여덟인 1990년에 지휘한 브루크너의 교향곡 4번 ‘낭만적’. 백발이 성성한 노(老) 지휘자는 악보도 없이, 평생 씨름해온 브루크너의 교향악을 암보(暗譜)로 지휘한다. 반트의 추상 같은 지휘봉이 허공을 그을 때마다 북독일방송교향악단의 관현악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비등점(沸騰點)에서 정확히 끓어오른다.

99년의 브루크너 7번, 2000년의 8번... 그리고 타계를 불과 7개월 앞둔 2001년 브루크너 최후의 미완성 교향곡인 9번을 연주한다.

여든 아홉의 노장은 부축을 받으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오고 때로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빛과 가벼운 손짓으로 지휘를 대신하지만, 함께 나이를 먹어간 관객들은 지휘자를 향해 따뜻한 박수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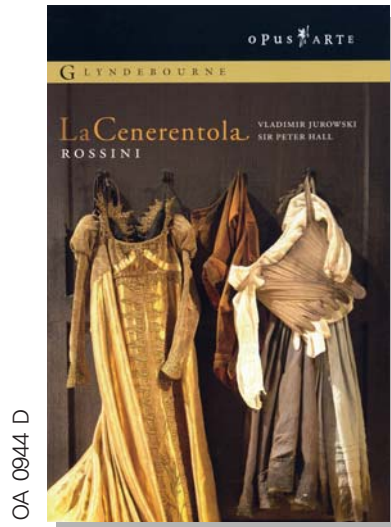
반트는 서른 셋의 나이로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를 맡은 뒤 30여년간 수백여곡을 지휘했지만, 인생의 종착점이 다가올수록 거꾸로 레퍼토리를 줄여가며 스스로 “종교적 질서를 담고 있는 음악”이라고 불렀던 브루크너에 매달렸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안다’는 공자의 말씀처럼 죽음을 앞둔 노목(老木)의 절개는 서릿발처럼 곳곳하기만 하다.

Gramophone 2006년 5월호 DVD of the Month

로시니 : 라 체네편톨라 (신데렐라)

룩산드라 도노세(안젤리나) / 루시아 치릴로(티스베) / 라켈라 쉬란(클로린다) / 나단 버그(알리도로)
루치아노 디 파스칼레(돈 마그니피코) / 막심 미로노프(돈 라미로) /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지휘) /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 2005 공연 실황은 피터 홀이 글라인드본에서 연출한 공연 중 하나이다. 그는 그곳의 예술 감독직을 불미스러운 일로 마감해야 했던 적이 있다. 과장 없는 무대 연출은 멋진 효과를 발휘하여, 성악진은 실로 최고이다. 그러나 압권은 뭐니 뭐니 해도 지휘를 맡은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의 놀라운 해석이다.” 그라모폰 편집장 제임스 인번

로시니의 흥겨운 선율과 함께 펼쳐지는 추억의 동화

‘뫼턴 계모’라는 그릇된 정형화와 ‘여자는 멋진 왕자를 만나서 팔자를 고쳐야한다’는 허황된 꿈을 세계 각국의 소녀들에게 안겨주었던 샤를 페로의 동화 ‘신데렐라’. 그 공과야 어떠하든 간에 백설 공주와 더불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동화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로시니는 이 유명한 스토리에 기초하여 훌륭한 희가극 하나를 완성하였다. 계모가 아닌 계부가 악역을 맡고, 요정할머니가 아니라 철학자 알리도로가 안젤리나(신데렐라)를 꽃단장시키는 것은 원작동화와 다르지만, 기본적인 이야기의 골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로시니 특유의 아름다운 선율과 유머 감각이 작품 전체에 가득하며, 특히 2막 피날레에 등장하는 안젤리나의 아리아는 쇼팽의 변주곡 등을 통해 우리 귀에 익숙한 바로 그 선율이다. 본 영상물은 2005년 6월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에서의 최신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영국의 저명한 오페라 연출가 피터 홀이 연출을 맡았고, 런던 필하모닉의 수석객원지휘자이자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음악감독인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가 지휘를 맡았다. 루마니아 출신의 세계적인 메조소프라노 룩산드라 도노세가 타이틀 롤을 열연하였다.



21세기 세계 지휘계의 거장

11년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는 193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지휘자다. 모스크바 그네신 음악원에서 공부했고,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레오 긴즈부르크 교수한테 배웠다. 1971년에는 예프게니 트라빈스키가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객원 지휘자로 등장시키면서 러시아 지휘계의 새로운 별로 소개되었다. 트라빈스키가 마련해 준 콘서트의 객원지휘가 대단한 호평을 받아, 페도세예프는 그때부터 많은 초청을 받게 되어 본격적으로 경력이 쌓이기 시작했다. 1974년에 페도세예프는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의 예술 감독 겸 수석 지휘자가 되었다. 그는 이 오케스트라를 거의 30년간 이끌면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영국, 스페인, 미국, 남아메리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연주여행을 다녔고 대부분의 콘서트를 성공리에 마쳤다.

1997년에 페도세예프는 오스트리아의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로 임명되었다. 물론 이 오케스트라와도 세계 연주여행은 계속되었고 본고장의 빈 무직페라인이나 콘체르트하우스에서 있었던 콘서트에서는 수준 높은 빈 청중들까지 열광시켰다. 그의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콘서트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쇤베르크의 〈구레의 노래〉, 베르디의 〈레퀴엠〉,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차르의 신부〉, 그리고 베토벤의 교향악 사이클 등인데, 특별히 2000년 송년 음악회에서 베토벤의 〈장엄미사〉는 매우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최근에는 바이에른 방송, 쾰른 필하모닉,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베를린 필하모닉,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그리고 프랑스의 많은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콘서트 무대에 등장해 좋은 연주를 들려줬다. 특히 일본 사람들이 그의 뛰어난 음악성을 아주 높이 평가해서 1996년에 페도세예프는 마침내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지휘자 직도 수락해야 했다. 오페라 지휘자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최근 취리히 오페라에 정규적으로 객원지휘자로 등장해서 베르디의 〈아틸라〉, 〈가면 무도회〉, 〈오텔로〉, 글린카의 〈차르를 위한

2006년 5월 31일 수요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삶〉 등을 무대에 올려 성공했다. 그의 지휘 스타일은 상당히 학구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어떤 것이다. 학구적인 면은 열정과 섬세함으로 빛나고, 카리스마는 형식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심오한 음악성으로 승화된다. 우리나라 애호가들에게도 페도세예프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다. 특히 이 음반에 실린 러시아 관현악곡 레퍼토리들의 대부분은 LP시절부터 많은 애호가들이 ‘첫 번째 선택’으로 꼽곤 했던 것들이다. 황량한 러시아 초원의 정경을 완벽한 분위기로 묘사하는 보로딘의 교향시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나 독특한 이국적 동양을 경묘한 색깔로 그려서 다른 연주를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폴리토프-이바노프의 〈카프카즈의 풍경〉 등 지금 들어도 참으로 신선한 호연의 음원들이 두 장의 음반에 가득 담겼다.

(이성일, 음반 내지에서 옮김)



[CD 1]

무소르그스키 : 별거숭이 산의 하룻밤
보로딘 : 〈이고르 공〉중에서 ‘폴로베치아인의 행진’
보로딘 : 교향시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이폴리토프-이바노프 : 〈카프카즈의 풍경〉
스비리도프 : 〈눈보라〉중의 ‘로망스’

[CD 2]

글린카 :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
차이코프스키 : 〈이탈리아 기상곡〉
차이코프스키 : “잠자는 미녀”, 모음곡 중에서 월츠 Op.66
차이코프스키 : 슬라브 행진곡 Op.31
림스키-코르사코프 : 스페인 기상곡 Op.34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8,800개 음반 / 130,000 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1,900 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 CD Quality (64K)

시험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빌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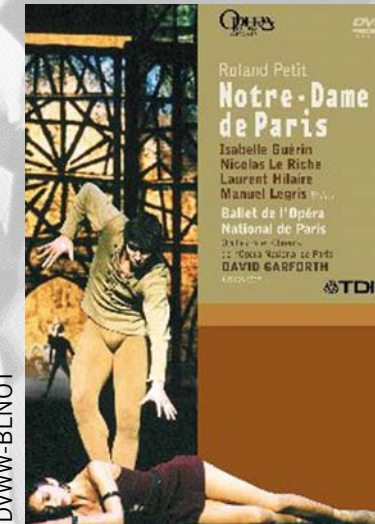
www.naxoskorea.co.kr



표지사진 : 방인주

발레로 재해석된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

음악: 모리스 자르, 안무: 롤랑 프티, 의상: 이브 생 로랑
이자벨 게랭(에스메랄다), 니콜라 르 리쉬(콰지모도), 로랄 일레르(프롤로 주교)



DWWW-BLNOT

프랑스 문화계의 역량을 응집해 놓은 화려한 무대

뮤지컬의 큰 성공과 더불어 다시금 세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무용가 롤랑 프티는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와 꼽추 콰지모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한 편의 멋진 모던발레극으로 승화시켰다. 프티는 1965년 자신이 객원안무가로 있던 파리 오페라 발레단을 위해 이 작품을 준비하였고, 프랑스 영화음악계의 대부인 모리스 자르에게 음악을 맡겼다. 바로 '닥터 지바고', '아라비아의 로렌스', '사랑과 영혼', '죽은 시인의 사회' 등의 주옥같은 명화들의 음악들로 우리에게도 무척이나 친숙한 이름이다. 본 영상물은 1996년 파리 국립 오페라에서의 공연을 옮긴 것으로, 이자벨 게랭(에스메랄다), 니콜라 르 리쉬(콰지모도), 로랄 일레르(프롤로 주교), 마누엘 르그리(페뷔스)라는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한다. 또한 화려한 원색으로 무대를 수놓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의 의상들 역시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6년 4월호

통권 제 11호 발행 : 2006년 4월 24일

발행인 : 임용득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usic.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